'대세 엑소' 빌보드도 주목

metro
메트로 2014년 1월 17일 금요일 www.metroseoul.co.kr

손흥민 "원빈 갈 생각 없다"

'10번째 1000만' 아바타도 넘는다

'변호인' 18일 개봉 31일 만에 1000만 관객 동원 확실

개봉 전부터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변호인'이 한국 영화 산업의 새 역사를 쓸 태세다. 15일까지 957만8682명을 동원한 이 영화는 18일께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영화로는 9번째이며, 외화까지 포함해 10번째 1000만 관객 영화다.

설 연휴까지 이어지면 역대 1위 1362만 돌파 가능
실존했던 인물 소재에 송강호 연기력 더해져 인기

거침없는 흥행 속도를 보이왔고, 여전히 30% 안팎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5주 동안 단 하루도 박스오피스 1위를 내주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역대 흥행 1위도 노려볼 만하다.

'변호인'은 개봉 31일 만에 1000만 관객 돌파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보다 빠른 속도로 1000만명을 넘어선 영화는 '괴물'(21일-1301만 명)과 '도둑들'(22일-1298만 명)뿐이다.

반면 역대 흥행 1위인 '아바타'(38일-1362만 명)를 비롯해 '7번방의 선물'(32일-1281만 명), '광해, 왕이 된 남자'(38일-1231만 명), '왕의 남자'(45일-1230만 명), '태극기 휘날리며'(39일-1174만 명), '해운대'(33일-1145만 명), '실미도'(58일-1108만 명)보다 빠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변호인'은 허구를 다루거나 역사적 사실에 허구를 곁들인 다른 1000만 관객 영화와 달리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를 소재로 어두운 현대사를 직접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개봉 전부터 노 전 대통령 미화 논란이 일고 노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인터넷에 상당수 게재되는 등 여러 악재와 부딪혔다. 이른바 '평점 테러'와 대량 예매 취소 사태도 벌어졌다. 그러나 2~3일 만에 100만 명씩 관객을 늘려가는 폭발적인 흥행세에 논란은 잠잠해졌고, 일부 극장에서는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지는 기현상까지 나타났다.

'변호인'은 철도 민영화 논란, 국정원 댓글사건 등 최어가는 사회적 현안에 피로를 느낀 관객들에게 사회 정의와 이상을 추구하는 주인공을 내세워 카타르시스를 제공했다.

◆ '더블천만' 송강호 티켓파워

이번 영화는 주인공 송강호를 확실한 '국민 배우'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설국열차'(934만 명), '관상'(913만 명)에 이어 한 해 영화 3편으로 3000만 관객 동원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눈앞에 뒀다.

또 '괴물'에 이어 '더블천만 배우'라는 명예로운 타이틀도 거머쥐게 됐다.

'변호인'의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는 퍼스트룩의 이윤정 대표는 "송강호는 관객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다. 많은 대역을 날카롭고 정확하게 표현하면서도 진심 있는 연기로 다가간다"면서 "'변호인'의 흥행도 관객이 송강호의 연기에 진심으로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변호인'의 투자·배급사 NEW는 예매 점유율과 좌석 점유율을 감안할 때 설 연휴 기간까지 흥행 동력을 이어갈 경우 역대 최고 흥행 기록 경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련기사 18~21면>

/유순호 박진영기자 suno@metroseoul.co.kr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일어선 소녀상 경남 거제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이 세워진다. 16일 '평화의 소녀상' 제작사을 하루 앞두고 건립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소녀상을 닦고 있다. 시민 기금으로 제작된 소녀상은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그 옆에는 빈 의자, 검은 그림자의 흰 나비, 벽문 등이 있다. 이 소녀상은 서울시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앉아있는 소녀상과 달리 서 있는 모습이다. 추진위는 일본의 끊임없는 역사 은폐와 왜곡을 참아서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를 서 있는 소녀상을 통해 표현했다고 밝혔다. 미날 미국에서도 '위안부 결의안'이 처음으로 미 의회의 정식 법안에 포함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미 하원은 위안부 결의안이 포함된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뉴시스

'상습 정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2018년 완공한다

금천IC~성산대교 10.3㎞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돼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서부간선도로 금천IC~성산대교 남단 10.3㎞ 구간이 2018년까지 지하화된다.

서울시는 1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부간선지하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5280억원이다.

지하도로 건설로 발생하는 서부간선지상도로는 건널목과 신호등이 있는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그 공간에 공원과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태호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서부간선지하도로가 생기면 지금 약 5만 대가 지하로 분산돼 지상의 지금 정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남북이 갈라지는 상황에 처한 금천구 시흥동에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계획도 통과시켰다.

/박현준기자 jujk@metroseoul.co.kr

스타 가족까지…도 넘은 악플

기자 수첩
양성운
<연예스포츠부 기자>

네티즌의 악플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스타들의 악플은 인터넷이 발달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고질적인 문제였다. 네티즌들은 익명성이 담보된다는 이유로 악성 루머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 같은 내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된다.

최근 배우 심가연은 악의적인 댓글을 남긴 악플러를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을 뛰어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악플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연예인은 가수 에일리를 비롯해 아이유, 방송인 변서은 등 다양하다.

그러나 최근 악플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출신 지역과 스타들의 가족까지 인신공격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성희롱 발언과 음색적인 욕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혼성 듀오 트라블메이커 현아가 임신해 현재 2주째라는 내용의 악성 루머가 등장하기도 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는 말이 연상될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유포자가 검거되더라도 눈물의 호소를 하는 등 해당 연예인에 대해 선처를 호소해 조용히 넘어가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러한 근거 없는 루머들은 인격적 모독과 더불어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 명예훼손으로 연예인 본연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육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악플을 낳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무리 익명성이 담보되는 인터넷 공간일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앞서 한 번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인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합의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뉴델리 영빈관에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정치와 경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인도 영빈관에서 만모한 싱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뚝/뚝/뚝/어제 떨어진 금배지 셋 6월까지 공직선거법 재판 5곳 예정

7·30 재보선 판 커진다

지방선거 출마 사퇴하면 최대 15곳에서 미니총선

이재영 신장용 현영희

7월 3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두 자릿수 지역에서 승부를 겨루는 '미니 총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경기 수원을),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 3명은 16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경기도 2곳이 이날 재보궐 대상지로 확정됐다. 또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보선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인천 서구·강화을, 인천 계양을, 충남 서산·태안, 서울 서대문을, 전남 나주 등 5곳에 이른다.

대법원 재판 결과가 당선무효형을 유지한 상태로 6월 말까지 나온다면 재보궐선거는 모두 7곳에서 치러지게 되는 셈이다.

2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거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지역구도 최종 판결에 따라 재보선 지역에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여야 현역 의원들 중 여러 명이 6·4 지방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방선거에 나서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7·30 재보궐 선거가 최대 15곳가량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7월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다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하반기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현정기자 h@metroseoul.co.kr

배우자 몫 50%엔 상속세 안 물린다

배우자가 우선 받게 될 상속 재산의 절반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지난 14일 상속편 개정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 중 50%에 관해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해당 선취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선취분은 유언과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혼인 및 별거 기간과 사유 등을 참작해 법원이 배우자 선취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도 마련됐다.

이는 배우자 상속분에 세금을 매길 경우 이혼 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을 분할할 때 과세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과 재산을 상속했던 남은 배우자마저 사망하면 이를 물려받는 자식들이 세금을 또 내야 하는 '이중 과세'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내달 초쯤 민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복지부·경찰청·방통위 '반부패 노력' 꼴찌

전국 225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부패 의지와 노력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의지와 노력을 평가한 결과 중앙행정부처 중에서는 복지부와 산자부,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 300인 이하 행정기관 중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또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북도, 임직원 수가 3000명 이상인 대형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가장 낮은 5등급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중소 규모 공공기관으로는 산림조합중앙회와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군인공제회, 강원랜드, 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부산광역시, 대전시교육청, 근로복지공단, 한국동서발전 등은 반부패 경쟁력 최상위인 1등급을 받았다.

올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 서울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농도 '주의보 예비단계'가 발령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역 전광판에 미세먼지 주의 내용이 안내되고 있다. /뉴시스

신촌 연세로 주말엔 보행자·자전거만 통행가능

서울 신촌 연세로가 주말에는 보행자와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주말형 보행전용거리'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2시~19일 오후 10시까지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한다. 이에 따라 연세로는 평일은 보행자를 비롯해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다닐 수 있고 주말은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재산 519억 빼돌렸다 밴쿠버서 체포

500억원대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캐나다 밴쿠버로 도피했던 한국인이 한국과 캐나다 당국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15일(현지시간) 주 밴쿠버총영사관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경비청은 현재 519억원대의 재산을 불법으로 홍콩 등으로 빼돌려 수배 중이던 A(54)씨를 밴쿠버에서 체포해 구금 중이다.

A씨는 2007년 홍콩에 한인회 명의로 유령회사 3곳을 차린 뒤 그해 2월~2010년 10월 수출인 서류를 위장해 임의로 설인 물품 대금을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도피시켰다.

총영사관 경찰 주재관인 이상준 영사는 지난해부터 A씨를 추적할 수 있는 신상 정보와 단서들을 캐나다 국경경비청에 제공하는 등 현지 사법 당국과 긴밀한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국경경비청이 지난해 12월 말 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중 한국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다.

얼음 속 동화나라 – 인제 빙어축제 내일 개막 강원 인제군 남면 소양호 상류의 얼음 벌판에서 펼쳐지는 제15회 인제 빙어축제 개막을 앞두고 16일 축제장 얼음 벌판에 마차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빙어축제는 18일부터 26일까지 펼쳐진다 /연합뉴스

"분노 버리란 말씀 선해"

이음다운 세상 만들기

4 탈북난민인권연합 김용화 대표

탈북자 지원단체 '탈북난민인권연합'은 탈북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고 중국에서도 탈북자들이 신변을 보호하고 쉴 수 있는 피난처 4곳을 운영 중이다. 이 단체를 통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의 수는 무려 7000여 명에 달한다. 이곳을 이끌고 있는 '탈북민들의 아버지' 김용화(61) 대표를 만났다.

◆ 18년간 목숨 건 탈출기

1988년 북한에서 열차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열차가 전복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함흥철도국 지도원으로 일했던 김 대표는 동료들이 공개 처형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탈북했다. "자식들 앞에서 초라하게 총살당하기 싫었어요"라며 울먹이던 그는 7년 동안 중국 각지를 떠돌다 1995년 베트남에서 망명 신청을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목숨을 담보한 그의 탈출기는 10년 넘게 이어졌다.

"베트남 유치장에서 북송을 기다릴 때 자살하기로 마음먹었죠. 감정이 폭발해 유치장 간부를 폭행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2년 동안 재판을 받느라 북송이 연기된 거죠."

재판 도중 느슨한 틈을 타 라오스로 탈출했고, 한국인 신혼부부의 도움으로 쪽배를 마련해 빵 6조각과 나침반, 방수비닐만 들고 18일 동안 노를 저어 한국의 안면도에 도착했다. 하지만 한국은 또다시 그를 거부했다.

"나는 죄인 취급하고 의심하는 한국이 싫었어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수용소 생활을 하다 일본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았죠." 북한을 탈출한 지 18년 만인 2006년에서야 그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

김용화 대표는 "탈북자들도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 수 있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탈북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손진영기자 son@

1988년 가족 남기고 탈북
18년 만에야 받아준 한국
김수환 추기경이 날 바꿔
탈북자 위해 살자고 결심

◆ 김수환 추기경 만나 인생 전환

한국에서의 삶은 고 김수환 추기경을 만난 후로 180도 변했다. "분단의 비극 때문이니 분노를 버리세요.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라는 추기경의 말은 그의 가슴을 적셨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 남은 여생을 모두 바치기로 결심했다.

김 대표는 탈북 도중 잡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구출부터 한다. 북송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버리거나 기부받은 옷들은 탈북자들의 목숨을 구하는 중요한 도구다. 중국 사람들은 옷차림만으로 탈북자들을 쉽게 알아채기 때문이다.

"탈북자들도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 수 있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취업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기업체에서 탈북자 채용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이들에게 앞날의 희망을 전해주세요."

10여 년동안 탈북자 7000여 명을 구출했지만 자신의 가족은 단 1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그는 "중국에서 방황하는 탈북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국내 탈북자들에게도 선입견을 갖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한창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난곡로 특별계획구역' 해제

서울시 관악구는 16일 난곡로 548 일대 7만4535㎡에 대한 '난곡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결정 고시했다.

난곡로 548 일대는 지역 주민의 약 82%가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찬성해 개별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자치구 경쟁력 향상 전국 1위

서울시 용산구가 2013년도 제18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 '경영활동' 부문 경쟁력 향상에서 전국 지자구 중 1위를 차지했다.

구는 구민과의 소통을 통한 구정 운영으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증대시켰으며 민원 수요 대응력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중국가무단 초청 설맞이 공연

서울시 금천구는 18일 오후 2시부터 금천구청 금나래아트홀 공연장에서 중국 간쑤성 장족가무단을 초청해 설맞이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초청 공연은 설을 맞아 한중 국민의 이해 증진과 양국의 우애를 다지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주최로 마련됐다.

담배소송 이르면 이달 제기

건보공단 24일 이사회 열어 확정… 최소 432억원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추진하는 흡연피해 구제 소송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24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를 열어 담배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내세우는 담배 소송의 이유는 흡연으로 인한 건보공단의 의료비 손실액은 매년 1조7000억원에 가까운데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을 대리해 부득이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다.

건보공단은 일단 2010년 소세포 폐암 환자 진료비 중에서 건보공단이 부담한 432억원에 대해 환수 소송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소송 규모는 6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소세포 폐암 진료비의 건보공단 부담금 환수 범위를 2010년도분에서 2002~2012년도의 10년치로 넓히면 소송액수는 3000억원 이상으로 치솟는다. /조현정기자

한양사이버대 석사과정 모집

한양사이버대학교가 오는 21일까지 2014년도 1학기 석사과정생을 모집한다. 학사학위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학부의 경우 2월 14일까지 추가 모집을 실시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학 졸업자나 4년제 대학교 수료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3학년 편입학도 가능하다.

문의 www.hycu.ac.kr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 운영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은 17~30일을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이 기간 동안 소포 접수물량은 지난해 설 명절(1179만 개)보다 16% 증가한 1370만 개가 접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정사업본부는 2100명의 소통 보조 인력을 추가 투입, 하루 평균 2150대의 차량과 배송 장비 등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해 우편물 배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학교 재산을 쌈짓돈 쓰듯

수백억대 배임·횡령 건국대 이사장 '퇴출'…전 총장도 스카우트비 수억 횡령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이 수백억 원대의 학교법인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해 손해를 끼치고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김진규 전 총장은 내부 결재 과정 없이 특정 업체와 수백억원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의사 스카우트 비용 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6일 학교법인 건국대와 건국대의 재산 관리 및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에 대해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하고, 김 전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 없이 장부가액이 242억원에 달하는 스포츠센터를 법인이 분양한 스타시티 입주민들에 4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관리비 46억원을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육부 허가 없이 광진구의 교육용 토지 2000㎡(공시지가 112억8000만원 상당)를 총동문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93억5000만원에 달하는 부속 중학교 증축공사는 모 건설사와 수의계약하고 마감재 등을 변경하면서 낙찰률을 반영하지 않아 7억2000만여 원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 법인 자금을 횡령한 직원에게 해임 처분을 요구하는 등 14명에 대해 중징계를, 135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윤다혜기자 yd...@metroseoul.co.kr

순산하는 요가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5회 베이비페어에서 임신부들이 요가강좌에 참여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력 경찰에 알렸다" 1%뿐

긴급전화 이용은 0.2%

지난해 성폭력 피해자 100명 중 1명꼴로 경찰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64세 남녀 가운데 1.5%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나 피해자 중 1.1%만이 경찰에 직접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 사실을 직접 경찰에 알린 비율은 가벼운 성추행 1.3%, 심한 성추행 5.3%, 강간·강간미수는 6.6%로 피해 수위가 높아질수록 상승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 긴급전화 1366이나 성폭력 지원시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0.2%에 불과했다. /윤다혜기자

한겨울 해병대 캠프 매운맛 16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겨울 해병대캠프에서 참가자들이 고무보트에 탑승해 상륙기습기초훈련(IBS)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안학교 폴수학학교 내일 신입생 설명회

수학 중심 연구형 대안학교인 폴수학학교가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폴수학학교의 교사진으로는 박왕근 교장을 비롯해 수학과 융합교육을 담당하는 박서정 카이스트 박사, 김욱 퍼듀대학교 박사 등이 있으며 영어과 융합 교육은 전 민사고 교육부장인 이영상 시카고대학 박사, 손혜정 연세대 신학대학교 석사 등이 담당한다. 신입생 설명회는 18일 오후 1시 서울역 심경교육센터에서 개최한다. 문의 (02)501-6903

'배임' 박찬구 회장 집행유예

200억원 상당의 회사자금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피해 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돈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아들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해 실제 손해가 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 정보를 통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 주(보유 주식 중 88%)를 전량 매도해 10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다혜기자

metro global

metro HongKong

窮婦養百孤兒

metro Brazil

ta drone para
rar enchentes

홍수·교통상황 관찰용 드론 띄운다

브라질 상파울루연방대학이 홍수 관찰용 '드론'을 개발했다. 드론이란 무선으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비행체를 말하며 현재 주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학 소속의 컴퓨터 과학 연구소가 개발한 이 드론은 최근 상파울루에서 발생한 홍수의 피해 상황을 관찰하고 도시의 교통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 우에이마 연구원에 따르면 개발된 드론은 재해나 사고 발생 상황 감시와 더불어 경찰의 치안 관리 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metro Russia

Узнать об Играх-2014
можно в поезде

소치 올림픽 '래핑 지하철' 운행 시작

최근 러시아 소치 올림픽 마스코트인 북극곰과 토끼 등을 포스터로 지하철 외관을 장식한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지하철'이 본격적인 운행에 돌입했다. 소치 올림픽 대변인은 "이 특별 열차는 올림픽 기간 동안 모스크바 일부 구간을 운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열차 내부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관련된 흥미로운 기록, 올림픽 입장권과 기념품 구입처, 유명 스포츠 스타들의 사인과 관련 기사 등 올림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로 가득하다.

metro France

Aubervilliers accueille les rêves de Gondry

佛감독 공드리 아마추어 영화 세트장 만든다

프랑스 감독 미셸 공드리가 파리의 한 낡은 공장을 영화광을 위한 공간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 북부 외곽의 오베르빌리에르에 위치한 섬유 공장을 영화 세트장으로 바꾸는 것.

'수면의 과학', '이터널 선샤인'으로 잘 알려진 미셸 공드리는 이 공간을 통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하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 파리 퐁피두센터에서 처음 시도된 미셸 공드리의 아마추어 영화 제작은 이미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당시 4500편에 가까운 영화가 만들어졌으며 6만5000명의 관람객들이 영화 제작 현장을 보기 위해 퐁피두 센터를 찾았다. 이후 성공에 힘입어 그는 상파울루, 뉴욕, 요하네스버그에 빈 공장을 찾아 영화 제작소를 차리기도 했다.

그의 이번 파리 아마추어 영화 제작소에 대해 오베르빌리에르의 시장은 "테마파크처럼 즐거운 공간이 될 것 같다. 영화학교보다 훨씬 친근하고 부드러운 느낌도 가질 것 같다"고 밝히며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 총 공사비 21억 투입

공사는 오는 9월 시작될 예정이며 2015년 말 제작소가 문을 열게 된다. 총 공사비는 150만 유로(약 21억 7000만원)며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공드리 감독은 "파리의 외곽순환도로를 지날 때 외곽은 도심보다 박물관, 미술관이 적은 걸 느낀다. 하지만 이곳엔 수많은 젊은이들과 그들이 가진 열정이 있다"고 밝혔다. /세리즈 수드리 르 뒤 기자·정리=정주리 번역기자

세상에 둘도 없는 '의자 엄마'

두 다리 없는 몸으로 의자에 의지해 30년간 고아들 돌봐… 폐암 소식에 中 누리꾼들 모금운동

중국 후난성 샹탄(湘潭)시 샹탄 사회복지원에는 선량하면서도 강인한 '의자 엄마'가 있다.

아름다운 마음씨의 주인공은 두 다리를 잃은 불편한 몸이지만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쉬웨화(58).

그는 한 살 때 아버지를 잃고 열두 살 때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다. 열일곱 살이 되던 해에는 사회복지원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복지원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자처했다.

쉬웨화가 30여 년 동안 돌본 아이는 모두 138명. 아이를 돌보기 위해 그는 양손으로 의자를 짚으며 걸어다니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의자 엄마로 불리는 이유다.

그는 아픈 아이의 열을 내리기 위해 세 번이나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 구순구개열(속칭 언청이)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주사기로 한 방울씩 먹였다. 또 아파서 입원한 아이가 있으면 그는 연일 밤을 새우며 돌봤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부모가 있는 '보통 아이들'처럼 입히기 위해 스웨터 수백 장을 뜨개질하기도 했다.

의자 엄마는 반신불수와 근위축증, 시각 및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모두 사랑으로 길러냈다. "제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나 한 게 있다면 집 없는 아이들의 엄마가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저를 엄마라고 부르면 정말 행복합니다."

사회복지원에서 함께 일하는 류 모씨는 "쉬웨화가 젊은 시절에는 한번에 아이를 열 명 넘게 돌보는 등 이곳의 '대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건강 문제로 아이를 전담으로 돌보는 일은 젊은 사람에게 넘기고 시간 있을 때마다 고아원을 찾아 아이들과 놀아준다"고 덧붙였다.

오랜 세월 선행을 하고 살아온 쉬웨화에게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그의 폐에서도 종양이 발견된 것이다. 하지만 쉬웨화는 아이 돌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 언론을 통해 쉬웨화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그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길 응원하며 모금 운동에 나섰다. /정리=조선미 기자

4월부터 은행 주택대출 연체이자 부담 감소

오는 4월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연체 후 기한이익이 상실되기까지의 기간이 짧아 고객이 충분히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해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일로부터 통상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췄다.

현행 은행여신약관은 일시상환 대출 고객이 이자를 연체하면 이자를 내야 했던 날로부터 1개월 후, 분할상환대출 고객이 원리금을 2회 연속 갚지 않은 경우 2회째부터 기한이익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한이익이란 대출 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

/김민지기자 minji@

한국 증시, 경상적자 측면서 안전

아시아 신흥국 대비 美 테이퍼링 본격화 인한 위험 적을 전망

연초부터 코스피가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좁은 박스권에서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는 등 올해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세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테이퍼링이 본격화되면 글로벌 큰손들이 신흥국 자금을 대거 빼내면서 신흥국 증시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다른 신흥국 대비 한국 금융시장은 덜 충격을 받을 쪽에 '베팅'을 유지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도이치뱅크가 신흥 아시아 9개국에 대해 자금 이탈 시 충격 위험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6위에 올라 상대적으로 다른 아시아 신흥국들보다 위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위는 필리핀,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였고 한국 다음으로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였다.

도이치뱅크는 위험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경제지표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 등을 적용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그 나라의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졌음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인 경기 상황에서는 자신 기력 흐름이 나 외국인 투자에 가려있다.

타이무르 바이그 도이치뱅크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미국의 테이퍼링 가능성 언급만으로 동남아시아 신흥국 금융시장이 출렁인 것은 이들 국가의 외국인 투자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며 "자체 자금조달 가능 여력을 알아보려면 경상수지 적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 역시 올 초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 쇼크에서 보듯이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둔화 국면에 접어들 우려가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한국의 수출이 예전처럼 늘어나진 않겠으나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더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봤다. 테이퍼링으로 자금 이탈이 나타나도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셈이다.

소재용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수출은 내미 의존도가 높은데 올해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국내 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7%에 그칠 것"이라며 "엔저가 지속되면서 국내 기업의 저공 비행이 당분간 불가피하지만 다른 경쟁국에 비해 수출이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한국성장률 전망 亞 10개국 중 9위

한국 경제가 성장률 쇼크에 빠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아시아 주요 10개국 가운데 9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모건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세계적인 10개 투자은행(IB)들이 전망한 아시아 주요국 경제지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난해 실질경제성장률은 평균 2.8%로 예측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중국(7.7%), 필리핀(7.0%), 인도네시아(5.7%), 인도(4.6%), 말레이시아(4.5%), 싱가포르(3.7%), 홍콩, 태국(이상 3.0%)에 이어 아홉 번째에 그친 순위다. 대만(2.0%)만 한국보다 못하다.

올해 성장률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

10개 IB가 내놓은 성장률 전망을 평균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3.8%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7.5%), 필리핀(6.3%), 인도(5.4%), 인도네시아(5.2%), 말레이시아(5.0%), 태국(4.1%)에 이어 싱가포르와 함께 7위다.

/이국명기자 kmlee@

금감원장과 고개 숙인 KB국민카드 사장 최수현(오른쪽) 금감원장이 최근 금융사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것과 관련, 1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를 방문해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과 함께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엥겔지수 낮추는 일주일 식단·장보기 메모

전순이 주부 경제학

요즘 마트에 가면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을 실감한다. 먹고 싶은 과일 하나 사는 데도 손이 떨렸다 놓았다 하며 고민하게 된다. 마트 할인 쿠폰이나 전단지 역시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 된 지 오래다. 우선 식비를 절약하려면 식단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일주일 식단은 구입한 재료를 꾸준히 이용하는 게 좋으며 재료를 남김 없이 모두 사용해야 한다. 한 달 분량의 메인 반찬을 메모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하면 미리 장보기 계획을 할 수 있어 지름신을 막을 수 있다.

대형마트에선 묶음 상품이나 1+1 상품이 많다. 이럴 때는 이웃들과 함께 장을 봐서 필요한 만큼 나눠 갖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깐 마늘이나 다듬어 파는 채소가 쓰긴 편하지만 집에서 손수 손질하는 것이 가격 대비 양도 많고 저렴하다.

구입만큼이나 중요한 게 보관이다. 냉장고 속 채소칸 정리가 힘들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 투명한 페트병을 채소칸 높이에 맞춰 자른 다음, 여러 공간을 만들어 채소를 보관해보자. 재료가 한눈에 잘 보이고 꺼내기도 쉽다.

주말에는 남은 식재료를 사용해도 괜찮다. 냉장고를 살펴보면 조금씩 남아있는 재료들이나 채소가 많다. 이것들만 알뜰하게 이용해도 식비 절약에 도움이 된다. 카레나 영양밥, 콩나물밥, 각종 볶음요리 등 멋진 요리로 변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트 영수증을 적극 활용해라. 장을 본 뒤에는 마트 영수증을 냉장고 문에 붙여놓고 재료를 관리해보자.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아도 어떤 재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빨리 사용해야 하는 식품을 따로 적어둔다면 식단을 짜기 쉽고 남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김현정기자

market index <16일>

코스피 1957.92 (+4.04)	코스닥 517.85 (+1.86)	금리 2.84 (-0.02)	환율 1063.90 (+6.80)

뉴스 & 뉴스

토종 의성 마늘 넣은 바게뜨 16일 서울 압구정동에서 모델들이 파리바게트가 토종 의성 마늘을 넣어 만든 '치즈마늘바게뜨'를 선보이고 있다. /파리바게트 제공

한은 발행 화폐 9조 증가

지난해 한국은행의 발행 화폐 증가액이 처음으로 9조원을 넘어섰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화폐 발행 잔액은 63조3644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315억원(16.6%)이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액은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1999년의 6조6393억원보다 2조4000억원이 많은 것이다. /김민지기자

서민금융1332 홈피 개편

금융감독원은 서민 취약계층이 금융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s1332.fss.or.kr)'를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는 서민들의 금융정보 부족 현상 해소 및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금감원이 지난 2006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서민 금융 포털사이트다. 이번 개편에서 그동안 단순 나열식으로 제공되던 서민금융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분류했다. /박정원기자

은행 중기 대출 34조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을 지난 2013년 말 488조9000억원보다 34조6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경제성장률 상향 전망(2013년 2.8%→14년 3.9%)에 따라 시중은행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국책 은행은 경기 완충적 보완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정원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회장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허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71

2002년 5월 31일 창간/일간신문 서울특별시 가

전셋값 5년새 33% 급등

서울시 전체 평균

서울시의 지난 5년간 전세 가격이 33%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서울시의 '2013년도 서울 부동산 시장 동향 및 2014년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전체 전세 가격은 평균 6.6% 올랐으며 이는 전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지난 2012년 인상폭 0.5%에 비해 크게 오른 것이다.

지난해 자치구별 전세 가격 변동률은 한강 이남 지역에서 영등포구 9.93%, 송파구 8.55%, 강남구 7.96% 등으로 높은 순이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 9.07%, 노원구 8.93%, 서대문구 7.86% 등으로 오름세를 주도했다.

전세 가격 인상에 따라 작년 12월 기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은 아파트가 63.6%, 주택이 59.9%로 상승했다. 1년 전보다 아파트는 5.6%포인트, 주택은 4.1%포인트가 높아졌다.

서울시는 2008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5년 동안 시내 전세 가격이 32.6%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 가격 상승과 저금리 기조로 보증부 월세, 이른바 반전세와 월세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임대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지난 2011년 31.2%에서 2012년 36.7%로 증가했다.

작년 부동산 매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후 잠시 거래량이 증가하다 다시 하락하는 패턴을 되풀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작년 주택 매매 거래량은 부동산실거래관리시스템(RTMS) 기준으로 2012년보다 29.1% 늘어난 15만6079건이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나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매매 가격은 2012년보다 1.4% 하락했지만 2012년의 하락폭 4.8%에 비해서는 내림세가 주춤했다.

시는 올해 경제성장률 회복과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매매 활성화 대책에 따라 부동산 매매시장의 완만한 성장세를 예상하면서도 인구구조 변화와 중소형 수요 증가에 따라 '중소형 강세, 대형 약세'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월세 시장에서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전세 거래가 감소하고 월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현정기자

동부대우전자 '전자레인지 한류' 100만대 판매

동부대우전자는 해외 특화 제품으로 출시한 현지 요리 자동 조리 전자레인지가 출시 4년 반 만에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동부대우전자는 지난 2009년 10월 멕시칸 요리 자동 조리 기능의 '쉐프멕시카노(Chef Mexicano)' 출시를 시작으로 중남미, 중동, 독립국가연합(CIS) 등 지역별 현지 요리 자동 조리가 가능한 전자레인지 제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20ℓ에서 34ℓ까지 다양한 용량으로 출시된 현지 특화 제품은 멕시코, 페루,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등 11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며 출시 이후 2년 반 만에 누적 판매량 40만 대를 돌파했다.

지역별로 멕시코 63만 대, 페루 15만 대, 러시아 10만 대, 이란 7만 대 등이 판매됐다. 특히 쉐프멕시카노는 중남미 지역의 인기에 힘입어 멕시코 전자레인지 시장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며 동부대우전자가 멕시코 전자레인지 시장 점유율 2위(24%)를 차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김재훈기자

포스코 권오준호 띄운다

임시 이사회서 차기회장 후보로 내정…3월 14일 주총서 공식 선임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로 권오준(64·사진) 포스코 사장이 확정됐다.

포스코는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최고경영자(CEO) 추천위원회가 단독 후보로 추천한 권 사장을 주주총회에 올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1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통해 내부 인사로는 권 사장을 비롯해 김진일(61) 포스코 켐텍 사장, 박한용(63)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 정동화(63)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4명, 외부 인사로는 오영호(62) 코트라 사장을 회장 후보로 확정하고 사외이사 6명 전원이 참여하는 CEO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CEO 후보추천위는 15~16일 양일간 후보별 서류심사, 심층면접 등 2차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전문성, 리더십 등 8개 CEO 요구 역량에 대한 최종 자격심사를 실시, 권 사장을 회장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권 사장은 3월 14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공식 선임된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2000년 민영화 이후 유상부·이구택 전 회장, 정준양 현 회장에 이어 내부 인사가 CEO를 계속 맡는다.

이영선 이사회 의장은 "철강업계 전체가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권 사장이 고유 기술 개발로 잠재력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등 포스코그룹의 경영 쇄신을 이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1950년생으로 서울사대부고,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86년 포항제철에 입사해 포스코 기술연구소장,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원장을 거쳐 2012년부터 기술총괄장(사장)을 맡고 있다.

한편 정준양 현 회장은 2009년 2월 포스코 회장에 오른 뒤 2012년 3월 연임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11월 임기를 1년4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신학기 책가방 가격 만만찮네 16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신학기 책가방 특별 상품전'에서 어린이 모델들이 책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가격은 빈폴키즈 책가방 세트 19만~30만원대, 닥스키즈 책가방 세트 11만~24만원대, 타미 힐피거 칠드런 책가방 세트는 14만~15만원대다. /연합뉴스

'쌍용건설 살리기' 한파 속 촛불시위

최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가 개시된 쌍용건설 직원들이 영하의 추운 날씨 속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 직원 100여 명은 지난 13~15일까지 3일간 서울 송파구 신천동 본사 사옥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직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영진은 부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촛불집회는 지난 9일 김석준 대표이사 회장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사내 전체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전격 결의됐다. 노조에 가입돼 있는 조합원(가입률 85%) 중 약 80%가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법정관리인(김석준 회장)이 취임식에서 회생 못는 회생은 없다고 말을 했다"며 "이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회사를 부실로 이끈 경영진과 책임 있는 간부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회생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쌍용건설 직원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월급을 반납하고 대출까지 받아 자사 보통주를 매입하는 등 눈물겨운 사투를 벌인 것은 유명한 일화다.

하지만 경영진은 측근 인사와 파벌 인사를 통해 본안 라인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능력과 관계없이 줄만 잘 서면 승승장구하는 구조 속에서 경영 부실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김성한 노조위원장은 "회장은 본인의 말을 잘 듣는 측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 측근들은 또 파벌을 형성해 자기 사람만 챙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소위 '신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으로 라인이 갈리고, 줄을 잘 선 사람들 사이에서 모럴해저드가 발생해 감사에 적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 모든 것들이 부실 경영의 단초가 된 만큼 인적 쇄신을 통한 지난 8년간의 독단 경영을 종식하라"며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회사와 직원들이 함께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직원들의 요구에 대해 사측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이현복기자

자기 주머니 털어야 '일 잘하는 직원' 대접

긴급진단 - 이석채 체제 공룡이 된 KT, 변해야 산다

직원수 3만명 '경쟁사의 7~8배' · 구조조정설 되풀이에 '줄서기' 만연
실적 지상주의 탓 '영업 지옥' 대리점도 "못살아" 타 이통사로 전환

'6000여 명이 구조조정될 것이다'

황창규 회장 체제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벌써 KT의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것이 황 내정자의 생각인지, 아니면 외곽 조직에서 논의되는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기존에도 사장 교체 시기에는 항상 '구조조정론'이 등장했다. 이는 KT의 직원 수가 경쟁사보다 7~8배가량 많은 3만여 명을 상회하고 생산성 면에서 경쟁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실행한 경우는 드물었다. KT 노조의 도움 없이는 잡음 없이 구조조정을 실현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문제는 3년마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KT 직원들이다. 일반 기업에서 강조하는 회사에 대한 로열티, 사업의 연속성 등은 기대하기

> **글 싣는 순서**
> ① 위기의 KT, 어디로 가나
> ② 내부 혁신이 우선이다
> ③ 이런 관행 괜찮나
> ④ ICT서 바라보는 황창규호

힘들다. 소위 살아남기 위한 줄서기, 눈치 보기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이석채 전 회장 체제 당시 서자 취급을 받아야 했던 기존 KT 직원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이 전 회장은 기존 KT 직원에 대해 '무능력하다'고 낙인 찍고, 외부 인사들로 주요 요직을 채워갔다. 소위 올레(낙하산 인물)와 원래(기존 KT 인물)로 구분되는 것이 이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기존 직원의 의견은 무시되기가 다반사다. 특히 이 전 회장의 독단적인 체제를 구축한 경우 반대 의견은 항명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실제 이 전 회장이 영입한 모 인사는 회의 석상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기존 KT 간부에 대해 책임 조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영업 현장의 '실적 지상주의'도 KT 직원의 사기를 꺾는 요인 중의 하나다. 본게(KT 본사)로부터 수시로 떨어지는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도한 영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업 일선의 직원들은 심지어 개인 돈으로 메우는 경우는 다반사며, 매출 실적을 위해 단말기가 아닌 고가의 서버를 편법으로 판매한 사례 등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본제 임원과 영업 일선 직원의 불협화음도 문제다. 임원들은 영업의 모든 책임을 직원들에게 돌리기 일쑤다. 경쟁사보다 많은 직원이 있음에도 영업 실적이 떨어지는 것을 놓고 '방만하다', '무능력하다'는 식으로 내몬다. 그리고 이를 평가 지표로 내세운다.

이에 대해 영업 조직의 한 관계자는 "본제에서 단말기 등 좋은 조건을 만들어 판매를 요청하지도 못하면서 영업 부진 책임을 현장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항변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 휴대전화 대리점들이 모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돌아선 상황이다. KT가 단말기 유통시장을 점유한다는 취지에서 진행한 '단말기 프라이스제도'가 오히려 독으로 작용한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대리점들은 보조금을 더 제공하는 경쟁사의 단말기를 판매할 수밖에 없다.

KT 관계자는 "본제에서 판매 전략을 잘못 짜는 바람에 많은 대리점들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로 넘어가 현재는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거처럼 KT 지사로 고객이 찾아오는 시대가 아닌 상황임에도 일선 직원에게 고객 모집을 할당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KT 내부에서는 황 내정자에 대해 긍정보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성과가 최우선시되는 삼성 사장 출신으로서 이런 잣대를 KT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황 내정자의 과거 발표 자료를 보면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삼성 마인드가 강하게 나타나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태균기자 ksst@metroseoul.co.kr

올해도 '700MHz 전쟁터'

유휴대역된 주파수 할당 놓고 지상파-이통사 '팽팽'

디지털 전환으로 연휴 유휴대역이 된 700MHz 주파수 대역의 할당 문제를 놓고 지상파와 이동통신사 간 갈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MHz의 남은 68MHz 폭 할당을 위해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용도 결정 일정은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지난해 주파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부처 간 갈등만 빚으며 결정이 늦춰져왔다.

이러한 가운데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14일 "700MHz 대역을 조속히 지상파 방송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방송 시장에서 초고화질(UHD) 방송이 향후 1~2년 내 대세가 될 텐데 국내 UHD 방송용 콘텐츠 선점을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아 UHD 콘텐츠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

이 같은 주장에 이동사 측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존 LTE 대비 2배 빠른 '광대역 LTE', 'LTE-A'에 이어 최근 3배 빠른 '광대역 LTE-A'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광대역 LTE와 LTE-A 서비스 확대에 맞춰 고화질, 고음질의 서비스 제공이 잇따라 출시되면 그만큼 급증하는 트래픽 해소를 위해서라도 700MHz 대역은 통신용으로 할당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사 관계자는 "수요가 많은 통신 서비스의 발전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700MHz는 통신용으로 할당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갤럭시 노트' 국내 1000만대 판매 돌파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국내시장 누적 판매량 1000만 대를 돌파했다. 사진은 삼성동 코엑스 갤럭시존에서 삼성전자 도우미가 갤럭시 노트 시리즈 1000만 대 돌파 기념 '갤럭시 노트 펜 페스타'를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르노 '메이드 인 차이나'
현지 생산 위해 둥펑과 합작

프랑스 르노자동차가 중국 현지 생산을 본격화한다.

르노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중국 둥펑자동차와 함께 합작사 '둥펑르노' 설립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둥펑르노의 자본금은 13억 달러로 르노와 둥펑이 각각 50대50으로 투자했다.

지난 1990년대 초반에 현지 생산을 포기하고 수입차만 판매하던 르노는 이번 설립 계약으로 다시 중국에서 사업을 펼치는 발판을 마련했다. 둥펑르노는 우한시에 2016년 가동을 목표로 연산 15만 대의 공장을 건설하고 현지 직원 200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향후 수요에 따라 30만 대까지 증설될 예정이다. /정의혁기자 hamer@

윈도XP 업그레이드 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XP의 보안 업데이트를 일부만 연장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지원은 예정대로 4월 8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윈도XP 사용자들은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MS는 "윈도XP용 시큐리티 에센셜 업데이트를 내년 7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다른 윈도XP 지원은 예정대로 4월 8일 종료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MS는 이어 "이번 조치는 윈도XP 사용자들이 상위 OS로 원활히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농협카드 '1월에 60만원 결제'하면 경품 기회

NH농협카드가 2014년 설 시즌을 맞아 다양한 할인과 캐시백 제공 행사를 진행한다.

농협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이 1월 한 달 동안 농협카드로 누적 60만원 이상 이용 시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 캐시백 또는 목우촌 굴 세트, 한삼인 제품, 농산물 꾸러미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고향을 다녀오거나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1월 말까지 철도와 고속버스, 항공 등 여객 업종에서 누적 10만원 이상 이용 시 추첨을 통해 최대 10만원을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이벤트 응모 고객이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전국 농협주유소에서 건당 7만원 이상 결제 시 이용 금액의 10%(1인 최대 1만 포인트)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설 선물을 구입할 때도 농협카드를 이용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일까지 전국 하나로클럽·마트에서 농협카드로 농산물과 각종 선물세트를 구입할 경우 현장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1월 말까지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면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에도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동안 무주리조트와 대명리조트, 보광리조트 등 전국 14개 주요 스키장 이용 시 농협카드를 이용하면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월 말까지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1만6000원에 살 수 있는 '만시오케이' 할인 이벤트와 에버랜드 및 캐리비안베이 할인 이벤트 등 놀이공원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김민지기자 minji@

2014 서적 트렌드

"나쁜 남자만 꼬인다고요? 다쁜 남자에게 끌리도록 습관이 든 당신의 뇌가 문제입니다."
–박용철 '감정은 습관이다' 중

"인기 직장 들어왔지만 회사 다니는 게 괴롭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해서 관둔다고 말하세요."
–'보르 직장생활' 중

새해에도 돈을 많이 벌며 성공하고 싶다는 독자들의 바람은 변함이 없다. 사진은 연초 교보문고 광화문점 실용서 코너에서 책을 고르는 사람들의 모습. /손진영기자 son@

돈 많이 벌고 싶고 연애하고 싶다면 돈 많은 사람 사귀세요… 헤어질 땐 쿨하게 보내주세요…

힐링 대신 독한 실용서가 뜬다

착한 힐링은 지고 독한 힐링이 뜬다.

출간 전문가들은 올해 실용서 전망에 대해 이같이 입을 모았다. 갈수록 곤란해지는 경제·사회 여건을 헤쳐나가는 데 단순한 위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때로는 아픈 가슴을 후벼 파는 신랄한 지적이지만 구체적인 해결 대처법을 제시해 도움을 주는 책이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다.

한빛비즈 영업팀 정재훈 팀장은 "2010년 초반까지 해외시장에서도 '희망'을 강조하는 힐링 서적 붐이 불었는데 현재는 사그라들었다"면서 "국내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 막연히 힐링을 외치는 자기계발서에 염증을 느끼는 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청림출판 편집1팀 최두은 팀장도 "독자들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서적으로 위로와 휴식을 얻었지만 힐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는 점을 깨닫는 중"이라며 "긍정적 자세를 강조하는 힐링 서적보다는 정곡을 찌르며 과학적 이론이 뒷받침 되는 자기계발서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돈을 많이 벌고 연애도 하고 싶어요'란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 '잘될 거에요'라고 토닥이는 대신 '돈 많은 사람과 사귀세요'라고 소연하는 책이 호평을 받는 것이다. 일례로 정신과 전문의 박용철 저자가 쓴 '감정은 습관이다'는 두 달 만에 10쇄를 찍어 화제를 모았다. '헤어질 때는 쿨하게 보내주세요'식의 현실적인 내용을 담은 법륜 스님의 에세이들은 연초에도 강세다.

한편 재테크 분야에서는 대박 내는 법이 아닌 쪽박 피하는 법을 다루는 서적이 대거 등장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갈벗출판의 경제경영 기획편집부 최선에 실장은 "자본주의가 주춤하니 경제경영서도 주춤하다"면서 "장기불황 시대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기대가 줄어든 만큼 '있는 돈이나 잘 지키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의 노하우를 다룬 성공담이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가을 출판된 평범한 주부의 무일푼 경매 성공담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는 5개월 만에 3만 부가 팔렸다. 최 팀장은 "독자들은 전문가의 거대 담론보다는 일반인의 이야기를 더욱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므로 올해에는 일반인 성공담에 주목하는 책이 많이 나올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갈벗출판은 푼돈 아끼는 노하우를 다룬 '푼돈이 가계'를 내놓을 계획이다. 한빛비즈니스의 '저는 재테크가 처음인데요!'는 출간 일주일 만에 2쇄를 찍었다.

이 밖에 인문학이 접목된 교양서가 올해 출판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란 응답이 다수 나왔다. 대표적 베스트셀러가 강신주의 '감정수업'이다.

복수의 출판 관계자들은 "공부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전문서 읽기에 부담을 지닌 독자들을 겨냥해 대중적 요소와 고전을 접목한 자기계발서가 많이 출판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PR 나영광 대표는 "출판 불황이라 해도 한 해 출판되는 서적 종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의 자기계발 의지가 커지는 만큼 관련 시장은 꾸준히 진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12월이 경제경영서 성수기인데 이 흐름을 연초에도 이어갈 킬러 콘텐츠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유승기자 unique@metroseoul.co.kr

"높은 연봉 받으려면 평판 관리에 힘써라"

인사담당자 88% 응답

높은 연봉을 받으려면 평판 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9명이 연봉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사내 평판을 꼽았기 때문이다.

1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인사담당자 371명을 대상으로 '연봉 협상 조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7.9%가 '직원의 사내 평판이 연봉 협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평판이 연봉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업무 외적인 조직 내의 융합 능력도 연봉을 결정짓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연봉 협상 전 인상안을 미리 정하는지에 대해서는 52.3%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협상력에 따라 연봉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연봉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평가 요소로는 개인업무 평가를 53.4%로 가장 많이 꼽았다. 상급자의 평가(27%), 근태(8.6%), 평소 행실(4.3%), 직원들 사이의 평판(2.4%) 등이 뒤를 이었다.

연봉 협상 시기는 1월이 47.4%로 가장 많았다. /이국명기자

취업에 가장 불필요한 스펙 1위는 '어학연수'

인사담당자가 가장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직자 스펙 1위로 '어학연수'가 꼽혔다.

온라인 포트폴리오 SNS 웰던투와 취업 포털 잡코리아는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 316명을 대상으로 '채용 시 스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인사담당자 중 93.0%가 '입사 지원자들의 스펙이 채용 시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자의 스펙 가운데 채용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항목으로는 어학연수가 응답률 3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봉사활동(31.0%), 학벌(28.8%), 토익점수(27.2%), 수상경력(21.2%), 학점(16.5%)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구직자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항목으로는 직무 관련 자격증이 응답률 46.8%로 1위에 올랐다. 이밖에 학점(29.1%)과 인턴 경력(28.2%) 등이 거론됐다.

채용 시 스펙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직무 분야 1위에는 연구직 분야가 응답률 48.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기획·전략직(26.6%), 전문직(20.3%) 등의 순이었다.

스펙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직무에는 '서비스직'이 응답률 42.7%로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생산·기술직(30.7%), 영업·영업지원직(28.5%), 홍보·PR직(13.9%) 등이 답변됐다. /정윤희기자

네이버 평균 연봉 7635만원… 벤처기업 1위

자에스이·유진테크 뒤이어

네이버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벤처기업 가운데 직원 평균 연봉 1위에 올랐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벤처기업 416개사 가운데 직원 현황을 공개한 124개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7635만원을 지급한 네이버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자에스이(6594만원) ▲유진테크(6538만원) ▲아라온테크놀로지(6179만원) ▲네오위즈게임즈(6100만원) ▲실리콘웍스(6092만원) ▲에스에프에이(6038만원) ▲윈세밀레콤(5900만원) ▲휴비드(5688만원) ▲스텔플라워(5300만원) ▲골프존(5306만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 전체의 평균 연봉은 4069만원으로 집계됐다. 남녀 1인당 연봉은 각각 평균 4357만원, 3051만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306만원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 매출 1000억원 벤처기업의 근속 연수는 평균 5.2년으로 나타났다. 하이록코리아가 13.3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삼신브레이크(13년) ▲금양(12년) ▲대동(11.4년) 등 5개 기업이 근속 연수 10년 이상을 기록했다.

이들 기업의 직원 수는 총 5만 121명으로 남성(3만8865명)이 여성(1만1256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에게형기자 kmlee@

'롤' 한국 수장 바뀌었다

라이엇게임즈 한국지사 총괄 대표에 이승현 선임

국내 1위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서비스하는 라이엇게임즈는 16일 한국지사 총괄을 위해 이승현(사진)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기존 한국대표를 겸했던 오진호 매니징 디렉터는 라이엇게임즈의 해외사업 총괄 매니징 디렉터 역할에 집중하게 됐다.

신임 이 대표는 SK텔레콤을 비롯해 리드스톤 투자 자문 및 NHN 등을 거쳐 라이엇게임즈에 합류했으며 전략, 사업 등의 분야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투자부터 인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왔다.

또 이 대표는 2013년 라이엇게임즈에 합류한 후 대외 및 운영 서비스 총괄 실무로서 적극적인 콘텐츠 로컬라이제이션 및 플레이어 서비스, 게임 경험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주도해왔다.

이 회사가 서비스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는 '롤'이라는 줄임말이 유저들의 일상 언어가 됐을 정도로 국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롤은 76주째 PC방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여전히 4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과시하고 있다. 이는 2, 3위 게임과 비교할 때 5배 이상의 큰 성과다.

한편 라이엇게임즈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리그 오브 레전드 국내 서버를 점검했다.

이는 전날 서버가 마비되면서 로그인은 물론 빠른 전투 검색 등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게임의 서버 점검이 이뤄지자 대규모 게임 업데이트와 새로운 패치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박성훈기자

'돼지 러너 족발의 시작' '궁디팡팡' '가속스캔들' 모바일게임 이름치곤 좀…

싼티 나면 어때? 튀잖아!

'돼지 러너 족발의 시작'.

족발 프랜차이즈 식당 이름이 아니다. 아프리카TV가 서비스하는 모바일게임의 이름이다.

문제는 이 게임명에 대한 유저의 반응이 크게 엇갈린다는 점이다. '친근하고 기억하기 쉬워서 좋다'는 입장과 '상대적으로 격이 떨어지는 느낌이라 거부감이 든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직관적이고 자극적인 게임 타이틀이 넘지고 있다. '날자기 공주 돌격대', '구해줘! 마녀의 숲', '텃다텃다 비행기', '가속스캔들', '누구누구씨의 하루', '궁디팡팡', '진격의 여친', '나는 김성근이다' 등 손에 꼽기 버거울 정도다.

이러한 타이틀이 늘는 가장 큰 배경에는 모바일게임 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근사하고 근엄한 이름을 달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어려워 출시와 동시에 퇴출될 수 있다는 일종의 강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돼지 러너 족발의 시작'만 해도 당초 이름은 '플라잉 피그'였지만 주요 고객층이 초등학생임을 감안해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카카오 게임하기에 등록되는 신규 게임이 쉬낙 많아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게임은 독특한 이름 덕에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으며 곧 일본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 "리니지", "블레이드&소울", "서든 어택", "피파온라인" 과 같은 인기 온라인게임 이름과는 차원이 달라 게임업계의 격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1990년대 후반 '젖소부인 바람났네'로 시작돼 '만두부인 속터졌네' 식으로 전개된 에로영화 네이밍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체 개발자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도 장인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었는데 최근 선정적인 타이틀이 늘면서 자괴감이 들 정도다. 마케팅 때문도 중요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으로서의 자존심은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초반에 시선 못끌면 출시와 동시에 퇴출 에로 영화식 네이밍 "격 떨어뜨려" 지적도

'열한시' '엔더스 게임' 곰TV서 시청

국내 최초의 타임 스릴러 영화 '열한시'와 할리우드 SF 블록버스터 영화 '엔더스 게임'을 곰TV에서 볼 수 있다.

인터넷 비디어 곰TV는 영화 '열한시'를 내려받기 또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한다고 16일 밝혔다.

영화 '열한시'는 '시간 이동'이라는 소재에 스릴러를 결합한 타임 스릴러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 주목받은 작품이다.

정재영, 김옥빈, 최다니엘 등 타임머신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시간 이동을 통해 24시간 후에 일어나는 자신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다룬다.

곰TV는 할리우드 SF 블록버스터 영화 '엔더스 게임'도 극장과 동시상영한다.

'엔더스 게임'은 무려 28년간 전 세계를 열광시킨 베스트셀러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다.

외계 종족의 공격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내는 우주전쟁 영화로 해리슨 포드, 아사 버터필드, 벤 킹슬리, 헤일리 스테인펠드 등이 출연했다.

/이경환기자 lenlee@

올인원 가전 '홈보이 G패드' 출시 LG유플러스는 전화, 오디오, TV, e-북, 보안 서비스 등 디지털 가전 기기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홈보이 G패드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홈보이 G패드는 지난해 8월 선보인 홈보이의 두 번째 모델로 LG전자 'G패드'를 재제작, 한층 넓어진 8.3인치 대화면과 풀HD급 고해상도 화질을 자랑한다. /LG유플러스 제공

'피파3' 모바일버전 출시

인기 온라인 축구게임 '피파온라인3'를 스마트폰에서도 즐긴다.

넥슨은 '피파온라인3'의 모바일 버전 '피파온라인3 M'의 서비스계약을 EA와 16일 체결했다.

온라인게임의 주요 기능이 연동되는 피파온라인3 M은 실사와 같은 생생한 그래픽과 향상된 전략 플레이를 지원하며, 전 세계 40개 국가 대표팀과 33개 리그에 소속된 1만6000여 명에 달하는 실제 선수의 모습, 최신 라인업 정보를 그대로 반영한다.

피파온라인3의 구단과 완벽히 연동됨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 피파온라인3에서 보유 중인 구단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나만의 선수단'과 게임머니(EP) 관리 및 리그 모드, '이적 시장' 강화 및 트레이드 등 주요 기능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테라 "새 캐릭터 '비검사' 추가요"

MMORPG '테라'가 오픈 3년 만에 신규 클래스 '비검사'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NHN 엔터테인먼트는 한게임에서 서비스하고 블루홀스튜디오가 개발한 테라의 업데이트를 실시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공개 서비스 이후 3년 만에 처음 업데이트되는 비검사는 테라 특유의 연계 시스템이 가장 잘 드러나는 캐릭터로, 다양한 연계 방식과 스킬 조합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다양한 콤보 구성이 가능해져 보다 풍성한 플레이 패턴을 즐길 수 있다. 서버 내 레벨 40이상의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비검사 캐릭터의 생성이 가능하며, 비검사 캐릭터는 생성 즉시 레벨 50부터 시작이 된다.

한편 비검사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도 진행된다.

다음달 12일까지 비검사로 60레벨을 달성하면 '유물 수호자 장비'가 지급되며 이번달 18, 19, 25, 26일 오후 9~11시까지 강화 성공 확률이 2배로 높아지는 '강화타임' 이벤트도 열린다. 이와 더불어 테라 페이스북에 비검사 만렙을 인증하면 엘린 피규어와 아트북, 헤어 액세서리 아이템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블루홀스튜디오 엔씨군 한국라이브팀장은 "신규 클래스가 나오기까지 3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주신 만큼 유저들이 만족할 수준에 오를 때까지 업데이트 이후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클래스 안내 및 관련 내용은 테라 공식 홈페이지(tera.hangame.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민희기자 unique@

감탄 넘치는 '꽃누나 코스' 나도 떠나볼까

'뜨는 관광지' 크로아티아 여행 위한 명소·숙박 정보

지난해 tvN에서 방송되며 인기몰이를 한 '꽃보다 할배'(이하 할배)에 이어 '꽃보다 누나'(이하 꽃누나) 열풍이 불면서 한국인들에게 생소했던 크로아티아가 이국적인 여행지로 인기를 얻고 있다. 꽃누나들의 발걸음이 남아있는 크로아티아 대표 여행지 및 인근 숙박시설을 호텔 예약 사이트 호텔스닷컴이 소개했다.

◆아드리아해의 진주, 두브로브니크

꽃누나를 통해 국내에 알려진 두브로브니크는 '아드리아해의 진주'로 불리는 아름다운 요새 도시다.

짙푸른 바다를 향해 견고한 성벽이 도시를 감싸고 있으며 성벽 안 구시가지는 옛 중세시대의 정취를 자아내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또 성벽 위를 걸으며 아드리아해와 도시를 내다볼 수 있는 성곽 투어도 빠뜨릴 수 없는 여행 코스다.

두브로브니크를 여행하면서 아드리아해의 일몰을 감상하고 싶다면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라파드 지역의 두브로브니크 빌라스 호텔을 추천한다. 동대섬 너머로 태양이 천천히 바다로 가라앉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화려한 산호 군락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엘라파이트 섬도 한눈에 볼 수 있다. 게다가 객실의 발코니에서 지중해의 바위 절벽 해변을 감상하며 터키식 스파도 즐길 수 있다.

꽃누나에 나왔던 법한 레지던스식 호텔을 찾고 있다면 아파트먼트 네리오를 가보는 것이 괜찮다. 군둘리치 광장, 렉터스 궁전 등 관광명소를 둘러보기 편하고 해변과도 가까워 성곽을 따라 걸으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또 공용 주방이 마련돼 있어 취사가 가능하고 구시가지에 있는 마켓에서 직접 장도 볼 수 있다.

◆ 아바타의 모티브, 프리트비체

꽃누나 5회에서는 멤버들이 자그레브를 떠나 직접 렌터카를 운전해 '요정의 마을'로 불리는 라스토케와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프리트비체를 들어보는 모습이 전해졌다. 프리트비체호수국립공원은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두브로브니크와 함께 크로아티아 여행에서 빠놓을 수 없는 명소로 꼽힌다.

만약 프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공원 입구로부터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호텔 데게니자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라스토케 마을과도 20km 거리에 있어 꽃누나들이 나녀갔던 코스를 따라 여행할 수 있으며 홈메이드 치즈와 달마시안 햄, 화덕에서 구워낸 피자와 그릴 요리 등 다양한 음식도 맛볼 수 있다.

◆아름다운 해안 도시 스플리트

꽃누나들이 자그레브, 프리트비체에 이어 도달한 아름다운 해안 도시 스플리트. 스플리트는 크로아티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태양이 강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디오클레티안 궁전을 중심으로 뻗은 좁은 골목들과 돔니우스 대성당, 그레고리 닌스키 주교 동상, 주피터 신전 등이 주요 볼거리다.

이곳에서는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항구와 버스정류장, 기차역이 모두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미르몬드 호텔을 추천한다. 모든 객실에서 디오클레티안 궁전 내 도시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호텔의 맨 꼭대기 층에는 아파트 형식의 스위트룸이 마련돼 있다. 또 투숙객들을 위해 뷔페식 조식, 스플리트 공항까지의 셔틀 서비스, 디오클레티안 궁전 투어가 무료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라바 럭셔리 스위트도 빠뜨릴 수 없는 숙박시설이다. 트립 어드바이저로부터 스플리트 최고 숙박시설로 선정된 호텔은 15세기 건물 안에 편리한 현대식 시설들이 갖춰진 모던한 객실들로 꾸며졌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쉐라톤 인천 호텔 '설맞이 패키지' 손짓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쉐라톤 인천 호텔은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합리적 가격의 2014 새해 설 맞이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패키지는 디럭스룸 시티뷰에서의 1박과 로비 라운지에서 따뜻한 차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스타우드 멤버십인 SPG 회원과 스타우드 호텔 이용 회원에게 실속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선착순으로 예약한 50명에게 연을 증정하며 송도 컨벤시아를 포함한 4개 지점 키즈파크 통합할인권도 포함돼 있다.

다음달 16일까지 운영하는 송도 키즈파크에는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어 아이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키즈파크 통합할인권은 4인까지 3000원씩 개별 할인 적용이 가능해 어린이를 동반한 어른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모든 숙박 고객에게는 쉐라톤 피트니스와 실내 수영장 이용 및 인터넷 사용이 무료로 제공된다.

SPG 회원 14만 5000원부터 SPG 비회원 16만 5000원부터 (세금 및 봉사료 별도).

또 쉐라톤 인천 호텔의 중식당 '유에'에서는 몸의 기운을 더욱 북돋아줄 횡성 한우와 타조요리 특선을 2월 16일까지 선보인다.

주요 고단백 특선 요리에는 횡성 한우를 곁들인 수방장 특선 해물찜 그리고 자연 숭어를 타조 고기와 조리시킨 세트 메뉴 '한' 삼해식으로 조리한 횡성 한우 잡육탕과 타조 고기 자슈 샐러드가 포함된 '우'가 있다.

더불어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단품 메뉴도 선택할 수 있다.

문의: 032)835-1004 /신원종기자

핀에어 유럽행 비즈니스석 특가 판매

핀에어가 새해를 맞아 유럽 28개 도시로 향하는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을 특가로 판매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1인 항공권과 2인 항공권으로 구분되는데 오는 20일까지 판매되는 1인 항공권 요금은 세금 및 유류 할증료를 포함해 최저 291만6000원부터 시작되며 다음 달 7일까지 판매되는 2인 항공권의 경우는 세금 및 유류 할증료를 포함해 최저 503만2000원부터 할인 판매된다.

1인 항공권은 핀에어 홈페이지 또는 여행사를 통해 예매 가능하며 2인 항공권은 여행사를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다.

또 특가 항공권 출발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해외 체류 기간은 최소 4일, 최대 30일까지다.

뉴스 & 뉴스

'세계 리딩호텔'된 더 물리아

● 인도네시아 대표 럭셔리 호텔·리조트 물리아 발리의 올 스위트 부티크 호텔인 '더 물리아'가 "세계 리딩 호텔(LHW)"의 회원으로 선정됐다.

세계 리딩 호텔은 80개국 이상의 국가 430개 이상의 럭셔리 호텔로 구성된 단체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한다.

물리아 발리는 111개 전 객실이 스위트룸으로 이뤄진 더 물리아 외에 물리아 빌라, 물리아 리조트 세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가고싶은 여행지 베스트 10'

● 하나투어는 '2014년 가고 싶은 여행지 베스트 10' 기획전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하나투어가 하나프리 페이스북을 통해 1385명을 대상으로 '2014년 자유 여행으로 가볼 만한 곳'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8표(8.5%)를 얻은 홍콩이 1위에 선정됐고 파리, 싱가포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하나투어는 기획전에서 항공과 호텔을 예약한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예약한 항공, 호텔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강원도의 힘!짜릿하게 얼얼하게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영월 동강겨울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추억거리를 선사한다

26일까지 '영월 동강겨울축제' 신나는 추억 가득

씽씽! 신나는 겨울, 영월의 추억 여행'이라는 주제로 오는 26일까지 강원 영월군 동강 둔치에서 열리는 '영월 동강겨울축제'가 강원도의 겨울을 녹이고 있다. 올겨울 색다른 추억거리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영월로 떠나보자.

◆축제의 하이라이트, 루어낚시

축제에서는 루어낚시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12월 말 시작된 축제에서 방문객들의 극찬을 받으며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루어낚시는 낚시의 손맛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며 낚시 도구도 현장에서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어 부담 없이 낚시를 즐길 수 있다. 높아진 인기 덕에 영월군은 현재 온라인으로 루어낚시 참가자를 예약받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얼음낚시, 맨손으로 절감장어와 송어를 잡아서 즉석에서 회나 구이로 먹을 수 있는 맨손 송어 잡기, 영월의 비경을 하늘에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도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다채로운 겨울 놀거리

축제에서는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놀거리도 가득하다.

얼음썰매장에서는 전통 썰매, 가족 썰매, 스노 래프팅 등 가족이나 연인, 친구끼리 즐길 수 있는 놀거리가 펼쳐지고 별도로 마련된 눈썰매장도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또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미니 바이킹, 4D 상영관, 미니 기차 등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제기차기대회, 통나무 자르기대회, 팽이치기대회, 얼음썰매대회, 인간컬링대회, 얼음축구대회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새로운 추억을 선사한다.

더욱이 체험 행사 참가자에게는 영월의 유료 관광지 방문 시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도 제공된다.

◆눈조각·얼음조각, 겨울에 눈뜨다

설원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볼거리는 방문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전문 조각팀이 제작한 눈조각 전시와 얼음조각 전시가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지며 행사장 내 포토라인에는 삼고대가 전시돼 있다. 또 주말에는 사물놀이, 지역 문화단체 소공연, 학생 동아리 공연 등의 공연 행사가 펼쳐진다.

추억의 먹거리 마당에서는 축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달고나 체험, 반합라면 끓여 먹기, 가래떡, 고구마, 감자 구워 먹기, 송어구이 등이 방문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 날짜: 1월 26일까지
- 장소: 강원 영월군 영월읍 동강 둔치 일원
- 문의: 동강겨울축제위원회 033)372-3843

/황재용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세계 4대 갯벌 '신안 굴축제'

세계 4대 갯벌로 유명한 천사섬 신안 압해도에서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신안 굴 축제'가 개최된다.

'천사섬 신안 굴, 천사의 입맛을 사로잡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축제는 겨울철 별미 수산물로 인기가 높은 굴을 통해 방문객들의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3월 말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현대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 동안 펼쳐진다.

'만남이 있는 신비의 바다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축제는 '바닷길 열림'을 활용한 킬러 콘텐츠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고유의 민속 문화 볼거리와 체험 코너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릉·청령포…'비운의 왕' 단종의 흔적 곳곳에

영화 '라디오 스타'', 동강 등으로 인해 전국에 명성을 알린 영월은 원래 단종의 유배지로 먼저 기억되는 곳이다.

◆단종의 혼이 잠들어있는 장릉

영월 영흥리에 있는 장릉(사진)은 조선 6대 왕인 단종이 잠든 곳이다.

아버지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승하하자 12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지만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즉위 3년 1개월 만에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온 단종과 함께 울었던 영월은 그의 생에 끝에서도 넓고 따뜻한 품을 내어주고 영원한 휴식을 선사했다.

장릉에는 선조 때부터 단종을 기리기 위한 상석, 표석, 장명등, 망주석이 세워졌으며 숙종 24년 단종이 복위돼 지금의 이름이 붙여졌다.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다.

◆단종의 흔적이 살아 숨 쉬는 청령포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유배된 단종이 머무르던 곳, 청령포. 청령포는 아름다운 송림이 빽빽이 들어차 있고 서쪽은 육육봉이 우뚝 솟아 있으며 삼면이 깊은 강물에 둘러싸여 마치 섬과도 같은 곳이다.

금표비와 단묘 유지비, 망향탑, 노산대, 관음송 등에서 단종의 숨결을 찾아볼 수 있으며 수려한 절경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영월의 명소이기도 하다.

/황재용 기자

Now Playing! 대학로 유니플렉스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오픈리뷰 1588-5212 [제작] OD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그 얼굴 활짝 피게 해줄 소식

더페이스샵 설맞이 세일 – 오늘부터 13일간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17일부터 13일간 '설맞이 세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29일까지 더페이스샵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 고객에게 품목별로 20~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표 베스트셀러 아이템인 '망고씨드 하트 버터 대용량'은 물론 프리미엄 한방 화장품 '명한 미인도 천삼송이 크림 대용량', 주름 개선 기능성의 자연 발효 화장품 '스킨 발효원액' 전 품목 등 겨울철 노화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들을 반값에 선보인다.

또한 올 초 출시한 신제품 '피부 속 맑은 씨' 에센스는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모델 수지처럼 깨끗한 피부를 원하는 20대 소비자를 위한 피부 속 맑은 씨' 에센스는 씨앗 속의 영양 주머니로 불리는 씨눈의 효능 성분을 함유한 미백 및 주름 개선의 이중 기능성 제품이다.

이 밖에 남성 화장품 '녀모르페식 블랙' 세트와 클렌징 전 품목은 50%, 설 기획 선물세트는 30% 할인 판매한다.

이와 함께 이 기간 5만원 이상 '피부 속 맑은 씨' 에센스 기획세트 구매 고객에게는 지정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 /김지민기자

31개 생필품 물가정보 홈페이지 오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31개 생활필수품 품목의 가격 정보 및 원가 분석을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price.consumer.or.kr)를 구축해 16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는 ▲가격 정보 ▲원가 분석 ▲알림마당 ▲서비스 소개 등 4개 메뉴로 구성돼 있다.

가격정보 메뉴에서는 31개 품목(96개 제품)의 품목별, 지역별·업소별 가격 정보와 가격 동계-가격 추이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원가 분석 메뉴에서는 품목별 출고 가격 및 주요 원재료 가격을 서비스한다.

그동안 물가감시센터는 가격 조사 및 원가 분석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생필품뿐만 아니라 개인 서비스, 공공 서비스 등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품목에 대해 소비자 생활 물가를 모니터하고 문제 있는 품목을 꾸준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센터 측은 "이번 홈페이지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가격정보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드래곤, 제이에스티나 핸드백 모델로

가수 지드래곤(사진)이 여성 핸드백 모델로 변신했다.

제이에스티나 핸드백은 비욘드 아이콘(Beyond Icon)이란 주제로 지드래곤과 함께 촬영한 광고 캠페인 화보를 15일 공개했다.

지드래곤은 티아라 캘딩 제연백과 티아라 클러치 등 제이에스티나 핸드백의 2014년 봄·여름 라인을 자신만의 펑키한 스타일로 연출했다.

제이에스티나 관계자는 "여성 의상도 서슴없이 입고 어느 여자 모델보다 멋지게 표현해 내는 지드래곤이 여성만의 패션 영역에서 제이에스티나 핸드백과 함께 글로벌 패션 아이콘 그 이상의 의미에 도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겨울에 시든 꽃피부 'SOS'

건조함 키우는 습관 자제하고 보습·탄력 관리를

직장 내에서 '피부 미인'으로 통하는 김현진(27)씨는 "요사이 며칠간 야외활동으로 뜨거운 물 샤워를 했더니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피부가 더욱 건조해졌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한파가 이어지면서 김씨처럼 피부 땅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CJ올리브영 마케팅팀 관계자는 "겨울철 잘못된 생활 습관은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며 "자신에게 맞는 성분의 보습·탄력 제품으로 맞춤 케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sw@metroseoul.co.kr

◆연꽃 성분으로 20대부터 노화 관리

평소 수분이 부족하고 탄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20~30대라면 '얼리 안티에이징'에 신경 써야 한다. 푸석한 피부는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므로 일찍감치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최근 부족한 수분을 채우고 탄력을 강화,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성분으로 연꽃 추출물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자연주의 브랜드 보타닉힐 보의 모이스트 유스 라인은 연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식물 에너지에서 추출한 '연꽃 플라센토'를 주성분으로 한 보습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이 가운데 모이스트 유스 앰플 에센스는 26시간 지속되는 보습력으로 피부에 생기를 부여한다.

◆마카 추출물, 남성 피부에 활력

잦은 면도로 거칠어지기 쉬운 남성 피부에는 진정 효과가 있는 성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서 자생하는 희귀 식물인 악마의 발톱'과 잉카제국 전사들의 체력보충제로 활용된 '마카' 추출물은 피부에 활력과 수분·영양을 동시에 공급한다.

이 두 가지 성분을 함유한 XTM 스타일 옴므의 '멀티-플레이어 올인원'은 보습 및 진정 효과가 뛰어나 망가진 피부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준다. 스킨·로션·에센스·크림의 복잡한 단계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올인원 아이템으로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게 스며든다.

한미약품 임직원 201명 '사랑의 헌혈' 한미약품 임직원들이 새해를 맞아 진행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헌혈을 하고 있다. 올해로 34년째를 맞는 캠페인에는 총 201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했으며 헌혈 증서는 대한적십자사에 전달돼 혈액 수요가 긴급한 기관에 기증될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2년 30년 이상 캠페인을 지속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적십자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기도 했다. /한미약품 제공

추위 끝나면 '연보랏빛의 계절'

팬톤 컬러연구소 발표한 올해 색 '래디언트 오키드'

글로벌 색채기업 팬톤 컬러연구소가 올해의 색으로 '래디언트 오키드'를 발표했다.

연보랏빛의 래디언트 오키드는 일찍감치 2014 봄·여름 시즌 컬렉션에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선보인 색상으로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트렌드에 맞춰 패션 업체들이 분홍색과 보라색을 활용한 소품을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다.

쿨센은 클래식한 디자인의 루시카에 발랄한 오키드 컬러를 입혔고, 키플링은 넉넉한 수납공간과 감각적인 보라색이 돋보이는 여행용 가방 '네버다'를 선보였다.

패션 전문가들은 "멋쟁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핑크와 퍼플 컬러가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파스텔톤의 오키드 컬러는 전체적인 스타일링보다는 소품을 활용해 포인트를 주는 것이 멋스럽다"고 조언했다. /김지민기자

에누리도 장 보는 손님 와야 해주지…

르포

전통시장 설 앞둔 풍경 공허한 정부 물가대책

가격 아무리 낮춰봤자 대형 유통업체와 '산지 직거래' 못따라가고 고객 줄어든 마당에 정부의 공급물량 확대는 상인 두번 죽이는 일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설을 2주 가량 앞두고 있지만 시장은 한산한 모습이다. /손진영 기자 ...

15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설을 2주 앞둔 상황인데도 손님보다는 엄체 상인들의 모습이 더 많이 보였다. 한 수산물 상회의 경우 가격만 물어보는 손님이 어렷 있었을 뿐, 정작 지갑을 여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물건이 팔려야 물가정책을 반영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냐. 설 명절 특수는 명절 하루 전날만 반짝할 뿐이다." 이 시장 상인 김모(54)씨는 기자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망원시장. 마포농수산물시장과 달리 그나마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편이었지만 주인은 "물가정책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지 체감할 수 없다"며 "이미 시장 내부의 경쟁으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닥상행정식 정부의 가격 경쟁에 고개를 내저었다.

이렇게 정부가 15일부터 29일까지 설 물가안정특별대책을 실시키로 했지만 정작 상인과 소비자가 직접 대면하는 재래시장의 경우 이런 대책에 대한 체감온도는 거의 반영되지 못한 상태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설 차례상 차림의 소요비용이 전통시장 기준으로 20만6000원 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0.8% 하락한 수준.

설 물가 하락은 지난해 작황이 좋아 대다수 품목의 생산량이 충분하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특히 사과와 배의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각각 25.1%, 63.0%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생산지와 직접 연결한 사전 예약주문 및 직거래장터 개설 ▲특별 공급기간(1월16~29일) 중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 평시 대비 1.6배 이상 확대(평시 7800t→1만2700t/1일) ▲28개를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 매일 물가를 조사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중점 관리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과 달리 시장 상인과 소비자는 물가 하락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 경제 불황과 오를 대로 오른 각종 공공 물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상인회 한 관계자는 "재래시장에서도 유통 단계를 최소화해 가격을 낮추려고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의 산지 직거래 형태와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며 "수요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 자체적으로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가격 변동에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수산업계의 한 상인은 "정부는 매번 공급을 늘려 가격을 하락시키겠다고 하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줄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상인만 이중 피해를 본다"며 "가격을 올리고 싶지만 구매 손님이 없을까봐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을 체감하지 못하는 건 시장 상인뿐만이 아니다. 제수용품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시장을 방문한 전업주부 최모(53)씨 역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실제 가격이 내려갔는지는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경기 침체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으로 손님을 잃어가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전효진기자 ...
/정혜인기자 ...@metroseoul.co.kr

민감한 아기피부, 제약업체가 '약손'

유아용품 시장서 특기 살려 관련제품 출시 붐

유아용품 시장에서 엄마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경쟁이 한창이다. 부모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녀를 위한 지출이 증가하고 전원경, 웰빙 스타일 등 아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소비자의 요구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넘쳐나는 유아용품 중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이에 제약사가 만들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제약사들 역시 유아용품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믿고 쓰는 제약사 유아용품

먼저 '생명 존중'을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는 JW중외제약이 영유아 제품 '하이맘 베이비케어' 5종을 최근 출시했다.

제품은 천연 유래의 식물 혼합 추출물 성분인 피토올리고, 피톤치드 등과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등이 함유돼 아기 피부의 진정과 보습에 도움을 준다. 특히 파라벤류 방부제, 인공색소, 탈크 등과 같은 유해 물질이 없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게다가 주력 제품인 '하이맘 다이어퍼 미스트'는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서 피부 손상 우려가 있는 파우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소개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또 JW중외제약은 소비자 대상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보령제약의 계열사인 보령메디앙스도 알레르기 케어 솔루션 브랜드 '닥터아토 3.5.7'을 새롭게 선보였다. 민감성·건성 피부를 위한 피부 단계별 맞춤 솔루션 제품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검수를 거친 10가지 피부 민감 지수 체크 리스트를 바탕으로 3·5·7 라인으로 세분화돼 개발됐다. 48시간 보습력 지속 테스트 및 피부과 테스트를 통해 아토피 방지를 위한 보습과 저자극에 중점을 뒀으며 유럽연합(EU)에서 선정한 26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기준도 적용됐다. /송태웅기자

뉴스 & 뉴스

한국로슈 크라익턴 새 사장

● 한국로슈가 지난 15일 데이비드 크라익턴 신임 사장을 선임했다. 크라익턴 신임 사장은 2003년 로슈 그룹에 입사해 스위스 본사에서 전 세계 항암제 부문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 활동했으며 2011년 10월부터 2년간은 로슈 인도네시아 사장을 역임했다.

크라익턴 사장은 "한국은 로슈 그룹 내 핵심적인 시장으로 이처럼 중요한 시장에 부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리벡' 누른 '타시그나' 약효

● 노바티스는 최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제55회 미국혈액학회 연례회의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타시그나'가 '글리벡' 대비 우수한 치료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연구는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회사는 이번 결과를 통해 타시그나가 더욱 높은 공신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대여성암병원 '암전문병원 대상'

'진단 일주일내 시술' 호평

이대여성암병원이 지난 14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4 소비자가 뽑은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암전문병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병원은 암 진단 후 1주일 이내 시술, 병원 방문 당일 한 공간에서 진료·검사를 시행하는 원스톱 서비스 등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백남선 병원장은 "이대여성암병원이 대한민국 대표 여성암 치료 병원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차별화된 진료 서비스와 함께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대여성암병원 제공

흥행성공 얼떨떨 빚진 제작비부터 갚아야죠 하하하

1000만 관객 돌파 앞둔 '변호인' 양우석 감독

신인 감독이 1000만 관객을 동원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베테랑 감독도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이다. 그러나 양우석 감독은 이번 주말 영화 '변호인'이 1000만 관객을 넘으면 데뷔작에서 대기록을 세우는 행운을 맛보게 된다. 그가 마흔다섯 살에야 데뷔한 늦깎이 감독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최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변호인'의 1000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두고 만난 그는 "만약 넘는다면 배우·스태프들과 자축 파티를 할 계획부터 세워야겠다. 그다음엔 아마 제작하면서 진 빚을 갚는 빚잔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1000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둔 소감은

흥행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질 않아 얼떨떨하다. 이번 영화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신경 썼기 때문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티브로 했기에 자칫 오해와 편견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늘 긴장하며 촬영했다.

―첫 연출작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사실 감독 데뷔는 늦었지만 영화 쪽에만 몸담고 있었다. 우리 영화의 미래는 기술에 있다고 생각해 임필성이 제작한 국내 첫 HD 영화 '욕망'(2004)의 HD 분야 프로듀서를 했고, 애니메이션에서도 [illegible] 분야에서도 일했다. 영화 투자에도 참여했다. 사람들은 나를 웹툰 작가로 아는데 그건 취미일 뿐이다.

―영화 '변호인'의 탄생 과정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구상한 지 오래됐지만 그가 2002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었다. 그런 상태로 10년이 흘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만들 시기가 왔다. 그러다 위더스필름의 최재원 대표가 독립영화로라도 만들어보자고 했고, 연출까지 같이 제의했다. 얼마 뒤 송강호씨가 합류하면서 일이 일사천리로 흘러가 상업영화가 됐다. 송강호씨를 업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다.

―왜 노무현을 소재로 삼았나

지금은 IT, 산업화, 민주화 등 1000년에 한 번 벌어질까 말까 한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는 시기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우리 사회의 목표와 동력은 약해지고 있다. 젊은 친구들을 만나보니 스펙 쌓기에만 맞춰 살아 나이에 비해 피로감이 컸다. 지금 우리 사회는 조로화된 사회로 가고 있다. 1980년대는 변화의 밀도가 가장 높았던 때였고, 당시의 젊은이들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환경을 극복했다. 치열했던 시기를 되돌아보고 싶었다. 그런 1980년대를 대표한 인물이 고 김재익 전 경제부총리와 노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에 한 분은 산업화와 정보화, 다른 한 분은 민주화의 토대를 닦았다. 5공 청문회부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고 1981년 부림사건에서 같은 인상을 받았다.

> 45세 데뷔한 늦깎이 감독
> 첫 연출작품 대박 터뜨려
> 송강호 업고 다니고 싶어
> 웹툰작가? 그건 취미일 뿐
> :
> 노 전 대통령 소재 삼은건
> 80년대 대표인물 중 한명
> 치열한 시기 성찰 기회 제공
> 차기작 코미디사극일수도

―민감한 정치적인 소재를 다뤄 논란이 컸다

어떤 사람은 노 전 대통령을 순수해서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순진하다고 싫어한다. 그래서 더 영화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변호인'은 정치적인 영화가 아니다. 그저 나를 포함한 모두의 이해의 성찰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창작자로서 하고 싶은 말은 작가의 의무는 사이렌이라는 것이다. 작가는 직접 행동하지는 못하지만 일러주며 주위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영화를 통해 이해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다면 만족한다.

―차기작에 대한 계획이 궁금하다

다양한 것을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 장르는 소설부터 영화까지 폭넓게 보고 있다. 그래도 차기작은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illegible] 큰 영화가 좋지 않을까 한다. 이번에 묵직한 영화를 해봤으니 다음엔 따뜻한 일상을 그리는 가벼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코미디 사극일 수도,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다.

/박준원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illegible]·디자인/[illegible]

 # 양우석 감독은 누구?

1969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에서 철학과 영문학을 전공했다. [illegible]년 MBC 프로덕션 영화기획실에서 PD로 영화계에 입문했고, SK 인디펜던스 기획실 실장, 룰렛스토리 최고경영책임자(CCO)를 역임했다.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이야기를 다룬 웹툰 '스틸레인'의 극작가로도 유명하다. 현재는 로커스 창작기획본부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미쳐서 결혼하고
정신차려 이혼했다!

tvN 금토드라마

응급남녀

매주 금,토 저녁 8시 40분 tvN 방송 / 1월 24일 첫방송

송지효 최진혁 이필모 최여진 클라라 연출 김철규 극본 최윤정

'양김' 수목극 전쟁 불붙다

첫판 대결서 '별그대' 김수현 시청률 지키고 '감격시대' 김현중 자존심 챙겨

김수현

'배용준의아이들' 김현중·김수현이 수목드라마에서 맞붙었다.

김수현 주연의 SBS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가 수목극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가운데 김현중의 안방 컴백작인 KBS2 수목극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이 15일 첫 방송되면서 이들의 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키이스트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배용준이 각별히 아끼는 후배들로 '포스트 욘사마'라는 별칭과 함께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별그대'의 김수현이 기선을 잡고 앞서가고 있다. '별그대'는 전작 '상속자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순조로운 출발을 한 데 이어 현재 20% 중반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 중이다. 특히 김수현은 전지현과 환상의 케미를 선보이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매회 갈아치우고 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감격시대'는 15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올해 KBS의 야심작이다. '꽃보다 남자'와 '장난스런 키스' 등 통해 말랑말랑한 꽃미남 연기로 여심을 사로잡았던 김현중은 180도 반전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남성미 풍기는 거친 액션 파이터로 변신을 시도했다.

첫 대결에서 김수현은 시청률을 지켰고 김현중은 자존심을 지켰다. 1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5일 방송된 '별그대' 9회는 전국 기준 시청률 23.1%를 기록했다. 이는 전회(24.4%)와 비교할 때 약 1%포인트 하락한 수치지만 다른 수목극과 압도적인 격차를 유지하며 1위를 지켜냈다.

동시간대에 방영된 '감격시대'의 시청률은 전국 기준 7.8%로 나타났다. 비록 '별그대'에는 못 미쳤지만 전작 '예쁜 남자' 마지막 회 시청률(3.8%)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예쁜 남자' 첫 방송 시청률(6.3%)과 비교해도 1.5% 포인트 높아 성공적인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황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김현중

'1004'로 돌아오는 B.A.P

그룹 B.A.P(사진)가 다음달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1004(Angel)'로 컴백한다.

16일 B.A.P 소속사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첫 번째 정규앨범 '퍼스트 센서빌리티'를 발표한다. '1004'를 전면에 내세워 돌아올 것을 밝혔다.

그동안 B.A.P와 호흡을 맞춰온 강지원·김기범 콤비가 메인 프로듀서로 나선 이번 앨범은 멤버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스펙트럼을 한데 응집시켰다. 총 13개의 트랙으로 다양한 장르와 메시지에 도전한다.

강렬한 카리스마와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전사의 이미지를 어필해온 B.A.P는 '1004'를 통해 댄디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어필하는 성숙한 남성을 표현한다.

한편 B.A.P는 탄탄한 실력과 세련된 구성으로 국내외에서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었다. 지난해 발표한 '배드맨'은 발매와 동시에 아이튠즈 월드 앨범차트에서 미국 1위, 일본 2위 등 세계 각국의 차트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독일 '리마커블 어워즈 2013'에서 올해의 가수와 올해의 노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황성운기자

엑소 '올해 주목할 아티스트 14'

빌보드 선정 "아시아 가수 중 유일…K-팝 차세대 스타 될 것"

14 Artists to Watch in 2014
By ... January 13, 2014 12:08 PM EST

그룹 엑소(사진)가 미국 빌보드가 선정한 올해의 아티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빌보드는 13일(현지시간) '2014년 주목할 아티스트 14'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시아 가수로는 유일하게 엑소를 뽑았다. 빌보드는 "엑소는 미국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보이밴드로 K-팝의 차세대 크로스오버 스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부 캠핑의 영향을 받은 '으르렁' 뮤직비디오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싸이, 소녀시대에 이어 2013년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본 뮤직비디오이기도 하다. 또 '으르렁'과 '늑대와 미녀'로 2013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K-팝 5위와 9위를 각각 차지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엑소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정규 1집 'XOXO'와 1집 리패키지 앨범을 합쳐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해 12년 만에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앞서 빌보드가 발표한 '2013년 K-팝 베스트 20'에서도 1위에 오른 바 있다.

이외에 '2013 멜론 뮤직 어워드'와 '2013 MAMA'에서 대상, 'KBS 가요대축제'에서 올해의 노래상, 중국 '음악풍운방 신인성전'에서 최고그룹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과 중국의 연말 시상식을 석권했다.

한편 '2014년 주목할 아티스트 14'에는 엑소와 함께 영국의 솔 뮤지션 존 뉴먼, 미국의 팝 듀오 클리저일드, R&B 가수 켕크스 등이 꼽혔다.

/유순호기자 sunn@

설현 다리부상… AOA 6인체제 컴백

7인조 걸그룹 AOA가 6인 체제로 컴백한다.

AOA의 설현(사진)이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신곡 '짧은 치마' 활동에서 제외됐다. 16일 AOA 소속사에 따르면 설현이 컴백을 앞두고 MBC '아이돌 스타 육상 양궁 선수권 대회' 녹화에 참여해 걸그룹 연습 중 다리 부상을 입었다. 정밀 검사 결과 설현은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아 현재 오른쪽 무릎에 반 깁스를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설현은 16일 발매하는 AOA의 다섯 번째 싱글 '짧은 치마'의 방송 활동이 어려워졌다. 한편 다섯 번째 싱글 '짧은 치마'를 발표하고 한층 더 강렬한 비주얼로 돌아온 AOA는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황성운기자

싸이·빅뱅… YG 가수 콘서트 보고싶을때 본다

동대문에 홀로그램 전용관

싸이와 빅뱅, 2NE1의 공연을 마음대로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KT는 동대문 롯데피트인 9층과 10층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를 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홀로그램 전용관 클라이브를 선보인다. 클라이브에는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와 '배드보이', 2NE1의 '내가 제일 잘나가'와 '파이어',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젠틀맨' 공연 영상이 상영된다.

/유순호기자

'노래가 늘었어' 에일리 가온차트 2관왕

가수 에일리(사진)가 가온차트 2관왕을 차지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16일 국내 공인 음원·음반차트인 가온차트에 따르면 에일리의 신곡 '노래가 늘었어'가 1월 셋째 주(1월 5~11일) 온라인 종합차트와 다운로드 차트 등 총 2개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온라인 종합차트 2위는 걸스데이의 '섬싱'이 차지했고 3위에는 엠씨더맥스의 '그대가 분다'가 랭크됐다.

4위에는 케이윌이 부른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 OST '별처럼'이 이름을 올렸고 5위는 동방신기의 '섬씽'이 차지했다. 바이 더 웨이 타이틀곡 중 하나인 '막 송'은 10위에 랭크됐다.

한편 동방신기가 지난 6일 발표한 정규 7집 '텐스'는 15만7581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1월 3주차 앨범 판매 1위에 올랐다.

/장병호기자

투자·배급사 NEW가 내놓은 영화 '신세계' '감시자들' '변호인' '7번방의 선물'(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투자·배급사>

'변호인' 1000만 이끈 NEW의 힘

빠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 강점··작년 영화시장 매출액 2위 '약진'

영화 '변호인'을 투자·배급한 NEW가 한국 영화계의 다크호스를 넘어 어엿한 선두 주자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NEW는 지난해 전체 영화시장에서 18.1%의 매출액을 점유하며 CJ E&M(21.2%)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대기업 계열사인 CJ·롯데·쇼박스 등 빅 3가 주도해온 한국 영화계는 NEW의 약진으로 새롭게 판이 짜여졌다.

이번 주말 '변호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NEW는 1년 사이 두 편의 1000만 관객 영화를 내놓게 됐다. 지난해 1월 개봉한 '7번방의 선물'(1281만 명)은 순제작비 36억원으로 15배의 매출을 올리는 초대박을 터뜨렸다.

또 '신세계'(468만 명), '감시자들'(550만 명), '숨바꼭질'(560만 명) 등 지난해 내놓는 영화마다 흥행을 기록했다. 이들의 순제작비는 각각 48억원, 45억원, 25억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다양한 선구안을 바탕으로 NEW는 지난해 21편을 선보여 280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편당 매출은 133억원이다. 반면 CJ는 42편으로 3275억원(편당 7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쇼박스와 메가박스에서 '괴물' '디워' '웰컴 투 동막골' 등을 히트시켰던 김우택 대표가 이끄는 NEW는 빠르고 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최고의 강점으로 내세운다. 대기업보다 슬림한 조직으로 전체 직원이 시나리오 검토부터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다.

NEW 마케팅본부의 박준경 본부장은 "장르가 휴먼이건 드라마건 코미디건 관객과 소통을 넓힐 수 있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직원들이 2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한데 그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김은영 바이올린 독주회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영(사진)이 24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연다.

그는 이번 연주회에서 모차르트의 아다지오와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을 연주한다. 피아니스트 정윤경이 협연에 나선다.

김은영은 중학교 2학년 때 독일로 건너가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 국내 여러 교향악단과 협연했으며 독주회와 실내악 연주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독일·프랑스·스페인·오스트리아·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러시아·미국 등지에서 호평을 받았다.

강원페스티벌 앙상블 악장으로 활동하고 원주시립교향악단 부수석을 역임했다. 강원대·수원대·연세대 원주캠퍼스에 출강 했다.

/박성환기자

공감백배 사랑학개론 보실래요?

'사랑의 유효기간 3년' 2월 13일 개봉

프랑스 영화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사진)이 다가오는 밸런타인데이 시즌에 맞춰 개봉한다.

밸런타인데이 전날인 다음달 13일 개봉될 이 영화는 2012년 국내에서 흥행한 프랑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를 수입했던 더블앤조이픽쳐스에서 준비한 로맨스 영화 프로젝트다. 1탄으로 '사랑의 …'가 밸런타인데이 시즌에, 2탄으로 '러브 인 비즈니스클래스'가 화이트데이 시즌에 개봉한다.

첫 번째 작품인 '사랑의 …'는 사랑에 실패하고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는 30대의 소심하고 찌질한 남자 마크(개스파드 프로스트)가 어느 날 자신과 정반대 스타일의 매력녀 알리스(루이즈 보르고앙)를 만나게 되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고민하게 되는 로맨스물이다.

영화를 연출한 프레데릭 베그베데 감독이 본인의 자전적 소설을 원작으로 직접 메가폰을 잡았다. 때문에 주인공 직업을 자신과 동일한 작가로 설정했다. 모든 감성을 글로 표현하고 묘사하는 언어의 유희에 독특한 재미가 있다.

영화 관계자는 "영화 제목처럼 진짜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인지에 대한 고민을 영화 속에서 수많은 사랑에 대한 정의로 나열한다. 이 모든 대사들은 공감할 수밖에 없어 한 편의 사랑학개론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녀 주인공은 현재 프랑스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젊은 남녀 배우 개스파드 프로스트와 루이스 보르고앙이 맡았다.

/박지원기자 …

베를린 경쟁부문 한국영화 '0'

제64회 베를린국제영화제(다음달 6~15일) 금곰상을 노릴 경쟁작이 확정됐다.

베를린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20편의 경쟁부문 진출 작품을 발표했다. '비포 선라이즈'의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과 에단 호크가 다시 호흡을 맞춘 '보이후드', 2009년 '밀크 오브 소로우: 슬픈 모유'로 금곰상을 받은 클로디아 로사 감독의 '어로프트', 프랑스 감독 라시드 부샤렙이 연출한 '투 맨 인 타운' 등이 주목할 작품이다.

지난해 홍상수 감독의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을 진출시켰던 한국영화는 올해 경쟁부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반면 중국 영화는 3편이 초청되어 강세를 보였다. 로예 감독의 '맹인안마', 닝하오 감독의 '무인구', 디아오이난 감독의 '백일화염' 등이 초청받았다. 일본 영화로는 야마다 요지 감독의 '작은 집'이 이름을 올렸다.

비경쟁부문에는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님포매니악: 무삭제 버전', 조지 클루니가 연출한 '모뉴먼츠 맨: 세기의 작전', 지난해 '가장 따뜻한 색, 블루'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배우 레아 세이두가 출연하는 '미녀와 야수' 등 쟁쟁한 작품들이 초청됐다. /유순호기자 suno@

디아오 이난 감독의 '백일화염'

베를린영화제 공식홈페이지 제공

대학로에서 발견된 유골의 비밀

권기봉의 도시산책 <85>

서울 대학로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유골이 무더기로 발견된 적이 있다. 지난 2008년 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한 건물을 철거하면서 14구의 유골이 발견된 것이다. 한국전쟁 때 숨진 이들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었지만 일부 두개골에서 보이는 예리한 절단 흔적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 기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석 달에 걸친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DNA 검사를 통해 유골의 주인공이 14명이 아니라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는 젖먹이의 유골도 3구나 있었다. 과연 그 뼈들의 주인공은 누구이며 왜 그곳에 집단으로 묻힌 걸까?

해답은 그 땅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곳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의학전문학교 해부학교실 등이 위치해 있었는데 일제는 그곳에서 단순히 해부학 연구만 한 것이 아니었다. 전국에서 조선인 유골을 모아다 일본인과의 인종적이며 체질적인 차이를 조사하는 등 인종론 연구도 진행했다. 조선인은 뇌가 작아 지적인 결함이 있고 열등하기 때문에 개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조선 지배가 필요하다는 식의 정치적 주장을 위한 억지 근거를 찾기 위해서였다.

물론 헛일이었다. 어떤 유의미한 차이점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대학로에는 일제와 의학 연구와 관련한 흔적들이 적지 않다. 서울대병원 본관 옆에는 지난 1922년 의학 실험에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겠다며 세운 "실험동물 공양탑"(사진)이 서 있다.

말 못하는 짐승을 위해서도 공양탑을 세웠던 이들의 마음은 자비롭다고 해야 할까? 대학로에서 발견된 유골을 포함해 식민지배기에 행한 각종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일본 정치인들은 지금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9	
3			2		9			8
1				3				5
			1		6			
	3						2	
		2	4		3	8		
6		7				2		4
			7		5			
4		3				5		7

1	2							
		7	1			2		
	9	5				8	7	
				6		3		
2	7		4		5			9
				7		4		
	4	1				7	8	
		6	2			9		
3	5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봇누스
슈퍼스도쿠 마스터 (재플러 허다이 리미티드 제공)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알루미늄 공장 동업 제안받아 장래성 없는 아이템 포기하길

박두산산 여자 81세 7월 21일 음력 초저녁

Q 사업을 같이하자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망설여집니다. 알루미늄 사출 기계를 싸게 인수해 시작하는 일이라 투자비는 별로 안 드는데 부부의 사주상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A 마르지 않는 습토는 물기(水氣)를 품어 일도전심(一道專心)하는 끈기와 집념이 엿보입니다. 정간(丁干) 속에 있는 천간의 오행에 관해(官害) 문서와 나와 같은 기운이 상당한 률을 갖고 있으므로 절체절명(絶體絶命)하고 어려운 것을 절묘하게 잘 헤쳐나 살아남는 길을 하는데 식상기(食傷氣)가 없으니 본인의 생각과 현실이 어긋나게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식신생재(食神生財)가 되어야 하고 운에서 재물이나 사업운이 상승 기운을 타야 하는데 지금은 하향기로 가고 있으며 충살(沖殺)을 받고 있어 매우 난감하군요. 알루미늄은 점차 마그네슘으로 소재가 대체되는 추세이므로 사양산업이니 장래성이 없으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최선입니다.

텔레마케팅 그만두고 구직 중 5월 귀인 만나 평생직장 구해

hynin 여자 80년 1월 17일 음력 새벽 이후

Q 텔레마케팅을 했는데 하루에 300통 넘게 전화해도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아 그만뒀습니다. 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식당 서빙이나 다단계뿐이네요. 그런 곳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A 생일에 괴강(보스 기질)은 극과 극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출인하고 적극(積極)하는 일을 해야 신상에 득을 얻게 되는데 2018년까지 지출, 관재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는 운세입니다. 새 인연을 맺기보다는 옛 인연을 소중히 해 취업 정보를 얻도록 하십시오. 영업 공부를 한다면 바위에 계란 치기의 형상으로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창업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면 배우십시오. 5월 지나면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남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주고 그 결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홍보재단 같은 직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4대 보험을 받는 평생 직장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하여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월 17일 (음 12월 17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총명한 일은 성사된다. 60년생 금전 흐름 활발하고 수입도 늘어난다. 72년생 정답은 가까운 곳에 있다. 84년생 친구의 눈물을 닦아줄 일 생길 수 있다.

소 49년생 생각 많으면 심신만 피곤하다. 61년생 집착이 강하면 잃게 된다. 73년생 갑자기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은 멀리하라. 85년생 신상에 좋은 변화가 생긴다.

호랑이 50년생 주장이 강하면 적만 늘어난다. 62년생 운기 좋지 않으니 두문불출하라. 74년생 활발하게 움직이다 수거은 별로다. 86년생 상사의 관심에 행복한 하루.

토끼 51년생 잠에서 깨어난 듯 새 일 도모하라. 63년생 꼬리가 길면 밟힌다. 75년생 작은 성과에 만족하고 내일을 기약할 것. 87년생 작은 실수는 도약을 위한 보약.

용 52년생 자녀의 속 깊은 마음에 감동한다. 64년생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76년생 길 잃은 나그네가 길을 찾는다. 88년생 남의 떡이 커 보이니 비교 금물.

뱀 53년생 마음 비우면 고민도 사라진다. 65년생 무작정 결단은 미루는 게 이롭다. 77년생 생각대로 일이 풀려 자신감 생긴다. 89년생 최선 다하면 행운도 따른다.

말 42년생 자녀가 뜻밖의 고민 안긴다. 54년생 떠난 버스에 손 흔들지 마라. 66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8년생 부모에게 도움 요청하면 보너스가 두둑.

양 43년생 과식으로 인한 탈 특히 조심하라. 55년생 자녀가 웃음꽃 선물한다. 67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지출에 대비할 것. 79년생 오르막이 길면 내리막도 길다.

원숭이 44년생 관록 발휘할 기회 온다. 56년생 이루어진 감투는 사양할 것. 68년생 능력 밖의 일에 욕심부리면 문제 생긴다. 80년생 튀는 언행으로 인한 구설수 조심.

닭 45년생 잔거리 외롭은 삼가라. 57년생 걱정한 일이 수면 위로 오른다. 69년생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81년생 과감할수록 얻는 게 많다.

개 46년생 활력소 될 일 생긴다. 58년생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상황은 피하라. 70년생 천륜이 구원을 만난 격. 82년생 여유 있을 때 자기 계발에 힘써라.

돼지 47년생 사람 소개는 신중할 것. 59년생 남을 도울 수 있어 감개무량. 71년생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83년생 직장에선 번뜩 아이디어로 주목받는다.

다저스 선발 트리오 '황금기'~ing

커쇼 7년 2289억원 계약…류현진·그레인키 5년 남아
최소 2018년까지 활용 가능…올해 WS 진출 관심집중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가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26)와 장기 계약을 확정하고 앞으로 5년 이상 황금 선발 라인업을 구축했다.

다저스는 2014년부터 7년간 2억 1500만 달러(약 2289억원)라는 거액을 제시해 커쇼의 마음을 잡았다. 이에 따라 커쇼-잭 그레인키(31)-류현진(27)으로 이어지는 최강 선발 3인방을 최소 2018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저스의 선발 3인방이 지난 시즌 합작한 승수는 45승이다. 양대 리그를 통틀어 3위(1위 세인트루이스 애덤 웨인라이트·랜스 린-셸비 밀러 49승, 2위 디트로이트 저스틴 벌랜더·맥스 슈어저-덕 피스터 48승)에 오를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커쇼는 2020년까지 다저스 유니폼을 입게 됐고 그레인키와 류현진은 자유계약선수(FA) 신분으로 지난해 다저스와 각각 6년간 1억4700만 달러, 3600만 달러에 계약을 맺으면서 큰 이변이 없는 이상 2018년까지 활약한다.

다만 월드시리즈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올해도 이들의 활약이 이어진다면 무난히 가을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두 왼손 투수 커쇼와 류현진은 선수 인생의 전성기를 맞고 있고 그레인키는 완숙기에 접어들었다. 천부적 능력을 지닌 세 투수는 모두 선발로 200이닝을 버틸 만한 강한 어깨를 지녔다. 또 한 시즌 15승씩 올려줄 만한 승리의 보증수표이기도 하다.

여기에 베테랑 우완 댄 해런을 영입할 경우 올 시즌 4선발로 안정적인 마운드 운용이 가능해진다.

커쇼와 계약을 성사시키며 최강 선발진을 가동할 수 있는 안전판을 확보한 다저스가 올해 월드시리즈에 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윤은기자 yse@metroseoul.co.kr

다저스 선발 트리오 연봉 성적 비교

샤라포바 40도 호주오픈 '진땀승'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 참가한 마리야 샤라포바가 16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파크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2회전에서 머리에 얼음팩을 두르고 더위를 식히고 있다. 섭씨 40도에 이르는 무더위에 컨디션 난조를 보인 샤라포바는 이날 세계 랭킹 44위 카린 크나프(이탈리아)에게 고전하며 2-1로 힘겹게 승리를 거뒀다. /AP 연합뉴스

골키퍼 삼총사 벌받는 중? 2014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 골키퍼 자리를 놓고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정성룡·김승규·이범영(왼쪽부터)이 15일(현지시간) 오후 전지훈련지인 브라질 파라나주 포스두 이구아수시의 마테시 경기장에서 독특한 자세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레버쿠젠 남겠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22·사진)이 바이에른 뮌헨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팀 잔류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뮌헨 이적설에 휩싸인 손흥민은 16일 독일 일간지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뮌헨에는 가고 싶지 않다"며 "지금 레버쿠젠에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팀을 떠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1000만 유로(약 150억원)의 이적료에 함부르크를 떠나 레버쿠젠 유니폼을 입었다. 이후 이번 시즌 정규리그 14경기 동안 7골(2도움)을 터뜨리며 맹활약하고 있다. /박진환기자 tak0427@

왕멍 발목 골절…소치행 불투명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의 왕멍(29·사진)이 부상을 당해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왕멍은 16일 오전 중국 상하이에서 훈련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왕멍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현재 왕멍의 상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부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술을 받더라도 올림픽까지는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 왕멍이 중국 대표팀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왕멍이 복귀하지 못한다면 중국 대표팀 전력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왕멍은 지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500m와 1000m, 3000m 계주를 싹쓸이하며 3관왕에 올랐으며 국제대회에서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앞길을 막는 가장 강력한 존재였다.

올 시즌 월드컵에서 심석희(세화여고)가 두각을 나타내며 중국 여자 쇼트트랙이 2위로 물러났지만 왕멍은 500m에서 세 차례나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대표팀의 경계 대상 1호로 꼽혀왔다. /유지현기자

프로농구 전적 16일

KT	17	26	28	19	90
삼성	15	17	9	21	62
전자랜드	17	25	21	16	79
KCC	20	17	19	20	76
국민은행	13	15	16	26	70
하나외환	13	13	10	24	60

프로배구 전적 16일

GS칼텍스	3	0	도로공사
러시앤캐시	3	2	LIG손해보험

기성용 '즐거운 비명'

스완지시티·선덜랜드 소유권 분쟁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덜랜드의 '보배'로 떠오른 기성용(25·사진 오른쪽)의 주가가 점점 치솟고 있다. 원소속팀 스완지시티와 선덜랜드가 기성용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절정의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는 기성용의 원소속팀은 분명 스완지시티다. 하지만 기성용은 지난해 9월 선덜랜드로 임대됐다. 문제는 언제 스완지시티로 복귀하느냐다.

영국 매체 미러는 16일 "선덜랜드와 스완지시티가 기성용의 이적을 놓고 다투고 있다"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기성용의 활약을 앞세워 강등권 탈출 가능성이 커진 선덜랜드의 거스 포옛 감독은 "스완지시티는 기성용을 복귀시킬 기회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기성용의 복귀 요청 마감일이 이미 지났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소속 미드필더들이 줄부상을 당한 스완지시티는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기성용은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1월 이적 시장이 마감될 때까지 복귀 요청 마감일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휴 젠킨스 스완지시티 회장은 "기성용은 우리 선수다. 우리는 1월 31일(현지시간)까지 복귀시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단 미카엘 라우드루프 스완지시티 감독이 기성용의 조기 복귀가 어렵다는 생각을 내비치면서 선덜랜드 잔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정성훈기자

이규혁 세계선수권 출전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맏형' 이규혁(36·서울시청·사진)이 여섯 번째 올림픽에 도전한다.

이규혁은 18~19일 일본 나가노에서 열리는 201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프린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소치 올림픽 최종 리허설을 치른다. 이틀 동안 500m와 1000m를 두 차례씩 달려 기록을 합산하고 수치가 낮은 순으로 순위를 매기는 '단거리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다.

한국 선수 최초로 통산 여섯 번째 올림픽에 출전하는 이규혁은 이번 대회를 통해 올 시즌 월드컵의 부진을 씻어내고 기분 좋게 소치로 향한다는 각오다. 이규혁은 "최근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서 "포기하지 않는 한 승부는 계속된다. 마지막 올림픽을 후회 없이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훈기자